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3+4
MAR + APR
2022 vol.17



특집 웨슬리 Wentworth와 한국 기독교 지성 운동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와 '나눔의 섬김' 사이에서

청년 시론 캠퍼스라는 바다에서

문화로 세상 보기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책 : 웨슬리 선교사님 생각하기

ISSN 2671-8731

Contents

MARCH + APRIL · 2022

시선

‘세계시민주의자’ 원이삼 선교사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우리 멘토이자 친구인 웨슬리의 국적 수여를 축하드리며 | 신국원 04

특집

웨슬리 웨스트워스와 한국 기독교 지성 운동

인생의 현재는 과거의 적분 값이다 | 김종현 06

내가 만난 웨슬리 선생님 | 강영안 08

그 한결같은 아름다움 | 양승훈 10

웨슬리 웨스트워스와 ‘기독교학문연구회’ 초기 활동 | 황영철 12

웨슬리와 문서 사역에 대하여 | 홍병룡 14

웨슬리에게서 받은 책들과 나눈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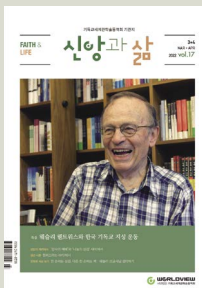
내 성경적 관점을 형성하다 | 홍종인 16

캠퍼스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 선생님의 삶 | 김종호 18

의료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 | 김민철 20

웨슬리 선교사님께 배운 기독교 교육 | 현은자 22

여전히 청년들과 함께하시는 현장의 캠퍼스 선교사 | 이경건 24



2022. 3+4월호 | 제17호(통권 232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람 사이

웨슬리 웨스트워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고문 26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와 ‘나눔의 섬김’ 사이에서 | 김철수 32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캠퍼스라는 바다에서 장동원	34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책 : 웨슬리 선교사님 생각하기 추태화	36
미술을 보다	
시각예술 분야의 기독교 지성 운동 서성록	38
책을 보다	
문서가 사람을 만든다 : 한국을 사랑한 문서 선교사, 웨슬리 언트워스 이준봉	40
정치적 착각에서 벗어나라! 권미영	42
그리스도인 정치, 과연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가? 홍성욱	44
정치화되지 않은 정치적 신앙을 상상하기 김재완	46

교회 路

LA총현선교교회 세계관 학교 소개 김기봉	48
소감문: 신앙 생활의 초석을 선물받다 김만수	49

온전한 지성

제2회 기독교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50
------------------------	----

소식

독자 한마디	51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세계시민주의자’ 원이삼 선교사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선교사들이 최초로 기독교 학교를 세운 곳은 인도였고 가장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운 곳은 한국이었다. 물론 한국인의 교육열을 이용한 선교전략의 하나였겠지만 초기 선교사들은 남녀, 반상 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성경의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그런 부조리를 과감하게 극복하고 현대교육을 실시하여 보편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큰 축복이었다. 연회, 이화, 배재, 숭실 등의 기독교 학교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우수한 대학으로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도 오늘날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 학교의 출신들이 한국의 현대화를 주도했고 사회 지도층을 형성했으며 지금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기 선교사들이 교육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지도층을 형성했다면, 20세기 이후에 활동한 원이삼(Wesley Wentworth) 선교사는 한국 복음주의 지성계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씨앗을 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위생공학기술자’로 한국에 왔지만, 그는 한국 복음주의 지식인들을 서로 연결시켰고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자처하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학자들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철저히 실천하여 대부분의 한국인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 복음주의 지식인들은 그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그의 겸손과 신실함에서 더 큰 감명과 영향을 받았다.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계에서 자라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우리 동역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 지식인 모임들은 대부분 그의 성실한 노력의 열매라 할 수 있다. 초기 선교사들은 교육 선교로 한국 사회와 교계의 지도층을 길러냈다면, 원이삼 선교사는 그의 겸손한 섬김으로 한국 복음주의 지식인들을 한데 묶고 기독교 세계관을 중요 관심사로 만들었다.

그는 미국인이지만 미국보다는 한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감상적이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잘살게 되었으니 아프리카에 가볼 생각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라는 가르침에 철저히 충실한 ‘세계시민주의자’(cosmopolitan)다. ‘세계시민주의’야 말로 기독교가 인류 사회에 공헌한 가장 소중한 사상들 가운데 하나고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한 모든 복음주의 지성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다. 원이삼 선교사는 이 ‘세계시민주의’를 어느 다른 지식인보다 더 확실하게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최근 원 선교사가 보내준 “복음주의적 지식인 삶의 재 각성: 한 기독교 학자의 편람”(Reawakening Evangelical Intellectual Life: A Christian Scholar’s Review)이란 글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계의 대표적인 지식인 카펜터(J. Carpenter)는 최근에 ‘세계시민주의’라는 고상한 가치가 미국 복음주의 공동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에 크게 가슴을 아파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가 이미 지난 5월에 지적했듯이, 미국과 유럽의 보수적 정치 세력은 바로 이런 지식인들의 ‘세계시민주의’를 엘리트 독선으로 간주하고 국수주의적인 ‘대중주의’(populism)로 이에 맞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저학력 시골 출신 복음주의자들 절대다수가 이런 ‘대중주의’의 주도세력이 되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므로 건강한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복음주의 지성계가 신학적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의 근본주의에 대항해서 엄청난 노력과 고뇌를 거쳐 이제 겨우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같은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대중과 이념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심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유럽에서는 고학력자들이 ‘기후 문제’로 보수 세력의 ‘대중주의’와 대치하고, 미국에서는 고학력자들의 ‘세계시민주의’로 보수계의 ‘국수주의’와 대치하고 있다. ‘기후 문제’가 전 인

류의 문제인 만큼 ‘세계시민주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졸자가 전체 인구의 30%에 불과하지만, 한국에는 50%가 넘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므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대립은 심각하지 않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학력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계에 잠재해 있는 근본주의 성향이 세속 정치계의 이념 갈등의 영향을 받아 복음주의 진영을 분열시키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진보 대통령 혹은 보수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국가와 교회 분리라는 금기를 깬 적이 있다. 매우 위험하고 걱정되는 타락이다. 잘못되면 미국 복음주의의 그 불쌍사나운 모습이 한국 교계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국 복음주의 지성계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확장해야 할 뿐 아니라 원 선교사의 본을 받아 철저히 겸손히 행동하고 절제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우리 멘토이자 친구인 웨슬리의 국적 수여를 축하드리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는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 선교사님 특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예로운 대한민국 국적 수여를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국가적 공헌으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동역회에서 기념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선교사님께서 항상 극구 사양을 한다는 데 있지요. 학계에서는 스승의 업적을 기려 제자와 동료들이 기념논총을 냅니다. 이 특집이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감사를 담은 조금 긴 ‘롤링페이퍼’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웨슬리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는 책은 이미 두 권이나 있습니다. 칠순과 팔순을 기념한 책들입니다. 생신 축하엔 백여 명이 한마음으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책도 모임도 역지가 전혀 없는 순전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특집 역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간 선교사님 마음의 짐을 특별한 방법으로 벗겨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축하할 이유가 더 해졌습니다. 편법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매년 비자를 경신하는 어려움을 감수해 왔는데,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웨슬리와 함께해온 홍병룡 형제의 말처럼 “이 땅에서 이런 기쁨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 큰 감사의 제목

입니다. 8년 전 고신대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이어 큰 선물이지만 어쩌면 때늦은 선물이라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이는 그가 대한민국에 헌신한 수고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며, 천국에서 받으실 상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국적 수여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은 특집 첫 글을 쓰신 ES 그룹 김종현 회장님입니다. 2년 넘게 저희에게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이번에도 모든 절차를 알아보고 법적 수속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이번 호의 <시선>부터 특집 글은 가능한 웨슬리와 다양한 인연을 맺어온 여러 영역의 열 분께 부탁드렸습니다. 그중에는 50년 넘는 친구들도 계십니다. 모두 기쁨으로 써주셨습니다. 이 글들이 저희 모두의 감사와 축하를 대신한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뷰>는 장수영, 양성만, 김셋별 세 분이 진행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서도 선교사님의 한결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되돌아보기도 앞을 보고 달려가는 열정 역시 빌립보서에 비친 노(老)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당부하십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향한 한결같은 애정으로 이들을 위한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은 <무소유>로 유명했던 한 승려보다 더 청빈을 실천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한국 기독교 지성과 교육 운동에 바쳤습니다. 저희 모두의 눈을 열어 주었고 그 의미 있는 운동에 참여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자비량으로 하셨기에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도 새로운 자료들을 모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 그의 이메일을 받는 분들이 동역회에는 많습니다. 그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신뢰와 열정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일군 발에 물을 주고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의 비전이라는 자양분을 공급해 한국 교회의 지성을 자라게 하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웨슬리는 선교사님이요, 선생님이요,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입니다. ‘형감탱이’ 또는 ‘형님’이라고 부담 없이 부를 정도로 친근하게 대해 주신 것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원고에서 호칭을 통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특집 글에 소개된 것 외에도, 웨슬리에 관한 미담과 일화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동역회원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선교사님이 해오신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호가 그런 각오의 다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선 학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철수 교수님의 소화가 담겨 있고, <청년 시론>에는 장

동원 형제의 글이 있습니다. <영화와 미술을 보다>에선 추태화 교수님이 영화 <미션>의 피리 연주를 통해 원주민에게 다가간 가브리엘 신부와 책을 들고 우리에게 온 웨슬리를 적절히 비유했네요. 서성록 교수님은 기독교 세계관이 시각예술 분야의 기독교 지성 운동에 끼친 영향을 소개합니다.

이준봉 형제는 <문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에 대한 서평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크 엘뤼의 <정치적 착각>에 대한 권미영 자매의 서평, 짐 월리스의 <하나님의 정치>에 대한 홍성욱 형제의 서평, 로날드 사이더의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에 대한 김재완 형제의 서평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소개합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40여 명이 함께 모여 5시간 연속으로 진행한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라는 고무적인 행사 소개를 통해, 예전 시절에 진행된 세미나나 집담회를 회상하게 될 뿐 아니라 모임의 높아진 수준을 느끼게 합니다. <교회로>에서는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의 IA충현선교교회 세계관 학교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뒷표지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실려 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모든 기고자분들이 주제에 잘 맞추어 글을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진의 수고에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인생의 현재는 과거의 적분 값이다

김종현 (ES 그룹 회장)



나와 웨슬리 선교사님의 만남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주일날 학교 주차장에 중년의 조그마한 미국인이 “당신은 한국인인가요?”라고 묻기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요?”라고 다시 물었고, 또 “그렇습니다”라고 한 대답으로 우리 만남은 시작되었다.

미국 군대 소속으로 한국에 처음 와서, 청계천 복개공사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광주 기독병원, 창조과학회로 이어졌고, 웨슬리 선교사님이 부친의 건강 악화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부친의 전도를 위해 미국으로 귀국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수많은 질문 후에 웨슬리 선교사님의 그 유명한 책 장사가 시작되었다. 두툼한 가방 속에는 많은 책이 있었다. 나의 지적 수준이 낮음을 간파한 웨슬리 선교사님은 세 권을 추천하였고, 그중에 파커(Parker)의 책은 무료로 주고, 나머지 두 권은 강매당했다(강매당했기에 저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웨슬리 선교사님과

의 만남을 평생 이어갈 수 있게 만든 조그마한 ‘소책자’(booklet)를 받았는데 그 소책자의 발행자는 생각나지 않지만,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연세대 수학과 교수님의 “내 친구 원이삼을 생각하며”라는 글이 들어 있었다. 그 교수님은 평생 친구인 웨슬리 선교사님이 미국에 영주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을 반추하여 친구를 기리는 글을 썼다.

그 내용을 읽자마자 가슴이 찡했다. 웨슬리 선교사님의 처음 만남, 일관되고 헌신하는 삶, 한국과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 구두쇠지만 사랑이 많은 청교도,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 가면서 자기가 먹고 남은 땅콩을 봉지에 싸서 전해 주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의 삶을 회상하는 그 글은 내 마음에 너무 깊게 남았다.

올해로 웨슬리 선교사님을 알게 된 지 38년이다. 세월이 많이 지나 나도 노년이 되었다. 그 오랜 시간에도 웨슬리 선교사님은 변함없이 구두쇠이고 고집쟁이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영감탱이이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끊임없이 기독교 정신 아래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관계망을 위해 일한다. 그 모든 것을 자비량 선교사로 말이다.

내가 재정 지원을 제안할 때마다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다.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tentmaker)으로 산 것과 같이 그는 한국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남에게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고집쟁이 선교사이다. 어떻게 때가 묻은 잠바, 20년간 한결같이 입고 다니는 남방, 낡은 구두, 여전히 못하는 한국말, 그렇다고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 반평생을 넘게 보아 왔는데 일관성에는 세계에서 5위안에 들어갈 듯싶다.

3년 전 웨슬리 선교사님이 심하게 병을 앓아 병원에 몇 개월을 입원해 있었다. 많은 지인들이 건강을 심히 걱정하고 있을 그때, 선교사님은 병원에서 유언을 작성하고 있었다. 전 재산을 한국의 여러 기독교 단체, 학교, 학생들에게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자기의 장례비를 위해 남겨 놓았다. 유언장을 보고 마음이 몹시 미어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을 위해서도 좀 쓰고, 장례위원장은 내가 할 터이니 장례비 걱정하지 말고 옷 좀 사 입으시고, 구질구질하게 다니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마음은 슬프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삶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인인 웨슬리 선교사님은 지난 47년간 매년 비자를 연장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직장을 통한 비자 연장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그 방법 또한 선교사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웨슬리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영주 귀국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안 많은 사람의 마음은 불편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평생을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많은 기독교 후학을 양성한 진정한 한국인이 한국 비자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미국으로 돌

아간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때마침 수백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특별기여자’ 제도로 장기 체류자격을 획득하였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공헌도가 큰 웨슬리 선교사님이 그런 자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도를 알아보았고, ‘특별공로자’에게 국적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회 외교위원장,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과 여러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도와주었다. 그 결과 웨슬리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건국 후 10번째 특별공로자로 마침내 한국 국적을 얻게 되었다. 한국인 웨슬리, 이제는 국민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고 지하철도 무료로 탈 수 있다.

웨슬리 선교사님의 대한민국 국적 획득을 위한 탄원서에는 단 10일 만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주셨다. 인생의 현재는 과거의 적분 값이라는 것을 이번 과정을 통해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내 마음에 있던 웨슬리 선교사님에 대한 빛도 약간은 탕감받았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웨슬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나는 항상 느끼는 것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의 큼이라”(마 5:12). **FAITH & LIFE**



글쓴이 김중현



ES 그룹 회장이다. 조지아 공대 기계공학 박사(Ph.D)이며, 조지아 공대 'Academy of Distinguished Engineering Alumni, Eisenhower Fellow' 이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사장이기도 하다.

내가 만난 웨슬리 선생님

강영안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교수, 서강대 명예교수)



나는 웨슬리(Wesley Wentworth) 선생님을 1986년에 처음 만났다.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와 기독교대학설립동의회(기대설)가 공동으로 진행한 학회에서 '학문의 힘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때였다. 나는 그 당시 계명대학교 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웨슬리 선생님이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 네덜란드에서 발전된 개혁신앙과 개혁신학에 관심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종종 만나게 된 것은 1990년 3월 서강대로 옮긴 뒤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웨슬리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세 가지를 늘 떠올린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웨슬리 선생님은 다른 분들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 번째는 책과의 연결이다. 웨슬리 선생님은 배낭 가득 책을 담아 나의 서강대 연구실로 종종 찾아왔다.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들고 왔지만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이 자리잡은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의 어드만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제일 많았다. 그것도 대부분 70% 할인한 가격으로 책

을 가져다주었다. 지금은 알라딘이나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에서 나온 책을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였다. 전공과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도서관에 신청하여 읽었지만, 기독교 관련 서적들은 이 당시 거의 웨슬리 선생님의 열심과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공에 매몰되지 않고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학과 기독교 철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세계관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극을 준 웨슬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0년대 들어서서 아마존을 통해서 쉽게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웨슬리 선생님의 방문은 줄어들게 되었지만, 웨슬리 선생님은 나에게 책을 공급해 준 분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결이다. 웨슬리 선생님은 많은 사람과 만남을 주선했다. 때로는 학교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식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기독교학문 연구회나 IVF 수련회 때도 연결시켜 주어야 할 학생이나 학자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만남의 자리를 주선

하였다. 이 가운데 한 분이 아마도 홍병룡 간사님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홍 간사님은 당시 IVP 일을 맡고 있었으니 다른 통로로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웨슬리 선생님이 통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웨슬리 선생님이 만남을 주선한 분들은 기독교 학문이나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만은 아니었다. 한번은 웨슬리 선생님이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박영신 교수님 덕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학교는 가까이 있었지만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그때까지 없었다. 2001년 코스타 강의차 시카고 근교에 있는 휘튼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아서 홈즈(Arthur F. Holmes)에게 메일을 보내어 저를 만나게 했을 뿐 아니라 철학과 교수들을 모두 나오게 해서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하였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에 웨슬리 선생님만큼 열심인 분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최근에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이때에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만나볼 기회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세 번째는 ‘카이퍼리안’(Kuyperian)으로서의 모범이다. 웨슬리 선생님이 나에게 책을 가져다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싶어 한 까닭은 그저 같이 만나 담소하고 같이 밥 먹기 위함이 아니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활동하기를 원했던 ‘카이퍼리안’ 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나 나는 생각한다. ‘카이퍼리언들’을 나는 많이 만나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웨슬리 선생님만큼 열정을 가지고 카이퍼(Abraham Kuyper)와 그 후예들이 그토록 강조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총체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뿐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분

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다. 웨슬리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늘 떠오르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네덜란드 신학과 교회 전통에 접했는지, 어떻게 카이퍼와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떻게 그 이후 세대에 속하는 알빈 플란팅가(Alvin Plantinga)나 니컬러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사상을 알게 되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웨슬리 선생님이 이 전통의 신학과 신앙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한 알의 밀알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고, 선배로, 친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웨슬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뵈 날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인이 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영안

서강대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 명예교수와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철학신학(Philosophical Theology)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대 졸업 후, 벨기에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 루뱅 대학교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한국철학회 회장, 한국 칸트 철학회 회장, 한국 기독교철학회 회장, 고려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 한결같은 아름다움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



지난 2월 16일 필자는 웨슬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선교사님은 가끔 이메일을 보내주시지만 대부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공지형 이메일이기 때문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 이메일을 보내주셨다. 읽어보니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필자를 위해 일 년 회비를 지불하고 '미국기독교과학자 협회'(ASA) 회원권을 선물했는데 받았느냐는 것이었다. 아차 싶어서 이전 이메일을 뒤져보니 1월 5일에 개인적으로 보낸 선교사님의 이메일이 있었다. 연초의 많은 이메일 속에 묻혀있어서 미처 못 본 것이었다.

1980년, 필자가 박사과정 학생 시절에 처음 만난 이후 웨슬리 선교사님은 늘 이렇게 '멘토링'하셨다. 멘토링을 하신다고 해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었다. 가만히 계시다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소식이나 책, 논문, 기사 등이 있으면 불쑥 링크나 파일을 보내신다. 이런 방식으로 선교사님은 생짜배기 필자를 그리스도인 학자로 다듬어 가셨다. 필자가 학생 시절부터 참여했던 창조과학 운동의 문제점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선교사님의 덕이었다. 1981년에

기독교대학설립동역사회(現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시작한 것도, 1988년에 <통합연구>를 창간한 것도, 1997년에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를 설립한 것도 선교사님의 직간접적인 영향 때문이었다. 아직도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선교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붙일 수 있는 학생으로, 학자로, 지금은 대학행정가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

처음 선교사님을 만난 후 42년의 긴 세월 동안 필자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지금은 아프리카 오지에 머물고 있지만 선교사님은 한결같이 그곳에 계셨다. 어디를 가든 필자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선교사님은 늘 '옆에' 계셨다. 오래전 필자가 시카고에 머물 때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필자가 피츠버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하신 적도 있다. 필자가 밴쿠버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필자의 이웃에 있는 캐나다인 그리스도인 학자를 소개하시기도 했다.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시편 기자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선교사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선교사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처음에는 편지와 전화로, 그리고 근래에는 이메일로, 일상에 묻혀 그리스도인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마다 선교사님은 한결같이 필자의 옆구리를 찌르셨다.

처음 만났을 때 선교사님은 45세의 청년이었고, 필자는 25세의 더 젊은 청년이었다. 둘 다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었다. 그 후 필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세상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그곳에 계셨다. 그 사이 필자의 영어가 좀 늘었지만, 선교사님의 한국말은 별로 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불편한 한국말로 선교사님은 대부분 먼저 필자에게 연락하셨다. 필자가 한국에 들 때는 필자의 한국어 동역 서신을 통해 필자의 동선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만나기를 먼저 요청하셨다. 한국어가 능치 않으신 분이 어떻게 동역 서신을 그렇게 자세히 아실까? 선교사님의 신학으로 미루어 오순절 방언이 터진 것 같지는 않고 구글 번역기의 덕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선교사님은 필자가 연락드린 것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연락하셨다. 마치 80대 부모님이 60대 자녀를 챙기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한결같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 한결같은 선교사님이 지난 2월 24일 특별공로자로 인정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다. 당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시민권을 수여했다고 한다. 한국에 오신지 57년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은 드디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셨다. 이것 역시 선교사님의 한결같은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선교사님은 42년을 한국에 살았던 필자보다 훨씬 더 오래 한국에 사셨고, 한국을 위해 헌신하셨다. 귀한 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 선교사님의

국적취득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축하를 위해 2월 20일 주일 아침에 선교사님과 온라인(Zoom) 미팅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을 삼 년째 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선교사님은 많이 노쇠하셨지만 그래도 그 간간함은 그대로였다. 필자가 5월에 귀국하면 뵙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자신은 5월에 미국 여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귀국 후에 뵈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이번에 미국 가면 그곳에서 자기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셨다. 고향인 앤햄스트를 비롯하여 미시간, 델라웨어, 린치버그, 블랙 마운틴, 차타누가 등을 방문해서 오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고향에는 자기의 장례를 부탁할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친척이 없기에 결국 미시간에서 화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셨다. 마치 남 얘기하듯이, 먼 길을 떠나시는 분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평생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셨던 선교사님다운 마지막 준비였다. 선교사님의 건강으로 봐서 한국 국적은 물론 이 땅에서의 시민권도 오래 유지하실 것 같지 않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귀한 분이 천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잠시라도 뵙고 그 한결같은의 뒷얘기들을 듣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승훈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이다.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참여했다.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1983~1997)를 거쳐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총장, 벤쿠버 주빌리 채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이다. 저서로는 <창조와 격변>(예영), <창조와 진화>(SFC), <기독교적 세계관>(CUP), <창조에서 홍수까지>(CUP), <그랜드 캐니언>(CUP) 등 40여 권이 있다.

웨슬리 Wentworth와 ‘기독교학문연구회’ 초기 활동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내가 웨슬리 Wentworth를 처음 만난 것은 총신대 4학년 때인 1981년이였다. 에인트호벤 공대의 기독교 철학 교수였던 에히베르트 스톨만이 총신대에 와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컴퓨터 기술에 대한 기독교 철학적 평가를 강의했다. 한국에 와서 7~8개의 주제로 강의한 교안을 뒤에 받아서 읽어 보았다. 당시 학생들은 아직 타자로 리포트를 치던 시대였다. 내가 XT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한 것이 대학 졸업 이후였다. 그런데 스톨만 교수는 그때 이미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간 두뇌의 관계, “인격이 정보의 축적인가?” 같은 철학적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앞서도 한참 앞서 있었다.

그 자리에 남루한 옷차림의 미국인 한 사람이 동행했다. 역시 그날의 강의와 관련된 영어 원서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책 좌판을 벌여 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누가 나를 웨슬리에게 소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와 인사를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웨슬리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철학 입문서인 칼스베이크(L. Kalsbeek)의 <Contours of Christian Philosophy>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총신대 강의를 그만두신 손봉호 선생님

이 총신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당동 꼭대기에 작은 집을 짓고 살고 계셔서 수시로 찾아가 책 번역과 관련된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네덜란드 유학을 준비하던 나는 도예베르트의 철학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그것을 연구하고 한국에 소개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웨슬리는 그 생각을 당장 여기서도 펼 수 있으니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과 각각의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웨슬리와 함께 처음 시작한 스터디 그룹을 지금 기억나는 대로 열거하면, 당시 홍릉의 카이스트(KAIST)에서 과학과 기독교에 관한 공부를 거의 매주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영문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예술과 기독교, 경제학과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등의 이름으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책을 읽고 토론했다.

당시 이화여대 사범대학의 정확실 교수 연구실은 교육학과 기독교를 공부하던 작은 센터였다. 아름다운 교정과 담쟁이 넝쿨로 감싸인 고즈넉한 건물의 연구

실, 거기서 나누었던 토론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홍릉 카이스트에서 가졌던 과학과 기독교 스터디 그룹은 웨슬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공을 들인 분야였다. 자신이 엔지니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의 사회적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었던 양승훈 교수가 주축이었다. 거의 매주 모였고 꽤 오랫동안 모임이 있었다. 그러던 중, 그 모임에서 기독교 대학 설립을 추진하자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웨슬리와 나를 포함한 당시 주축 구성원들은 기독교 대학 설립에 회의적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독교 대학이라면 기독교적인 철학과 원리 위에서 제반 학문을 가르쳐서 기독교적 사상으로 준비된 시민을 배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런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아직 그러한 준비가 된 교수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카이스트 모임과 의견이 달랐던 또 다른 주제는 창조과학과 관련된 문제였다. 나는 기독교 철학적으로 반성해 보았을 때 창조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았다. 창조는 이미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창조가 사실이기 는 하지만 모든 사실이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그 점에서도 초기 스터디 그룹의 중심 멤버들과 카이스트의 구성원들은 견해를 달리했다. 지속적인 토론을 벌이던 중 결국 모임을 분리하기로 했다.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창조과학회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스터디 그룹은 계속해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기독교대학설립 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는 다시 합쳐서 현재 하나의 기관이 되었다. 갈라지고 다시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사의 한 부분이다.

그 이외에도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기꺼이 자기 집을 개방하여 공부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일일이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 웨슬리는 거의 모든 모임에 참여하셨다. 카이스트 모임 이외의 모임들은 거의 격주로 모인 것 같고, 웨슬리와 나는 매주 2~3개 혹은 3~4개의 모임에 참여했다. 한국어가 서툰 웨슬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나를 무엇인가를 계속 열심히 하고 계셨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시작되었다. 그때 함께 공부하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시니어 회원이 되었고, 많은 신진 학자들이 지금 주축이 되어 모임을 이끌고 있다. 그 모든 이들은 '웨슬리 키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웨슬리는 지금도 남루한 옷에 노구를 이끌고 자주 기독교와 학문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사랑을 들볶고(?) 있다. 그에게 들볶이던 지난날은 즐거운 추억이다. 많은 분이 이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교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가정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웨슬리와 문서 사역에 대하여

홍병룡 (前 도서출판 아바서원 대표)



나는 웨슬리 웹트윈스 선교사의 대한민국 국적수여식(2022년 2월 24일) 며칠 전, 국민일보 기자가 웨슬리와 인터뷰를 하는 현장에 우리 몇 사람이 동석했다. 그는 어김없이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와 〈온전한 복음을 담은 세계관 이야기〉 등 책 몇 권을 갖고 와서 기자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그 책들을 소개하고 추천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두어 권을 가져 주었다.

작년 이맘때, 미국에서 출판된 〈The Outrageous Idea of the Missional Professor〉라는 책을 나에게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읽어보니 그리스도인 교수의 사명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쓴 좋은 책이라 국내 한 출판사에 추천했더니 사정이 어려워 최소한의 선인세와 파격적인 로열티가 아니면 출판하기 어렵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웨슬리와 나는 먼저 줌을 통해 저자 측과 몇 번 의논하고 웨슬리가 국내 에이전시를 접촉하는 등 몇 개월의 수고 끝에 드디어 계약이 성사되어 현재 내가 번역하는 중이다(나중에 알고 보니 황영철 목사님을 통해 〈신앙과 삶〉에 소개

된 적이 있다).

약 2년 전에 웨슬리와 함께 세브란스의대에서 뇌과학을 가르치는 박해정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에 출판된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웨슬리가 건네주었고, 몇 개월 후 다시 함께 만났을 때에는 내가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지성적 회심〉을 선물로 주었다.

며칠 전에는 나에게 몇 개월 전에 건네준 책을 내 의견과 함께 돌려드렸더니 이번에는 작년에 출판된 ‘AI와 기독교 신앙’이란 부제가 붙은 〈The Robot Will See You Now〉라는 책을 나에게 안겼다. 또 하나의 숙제를 받은 셈이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웨슬리의 이메일을 받는다. 본인이 여러 자료와 사이트를 두루 살피다가 괜찮은 책이나 글이나 단제가 눈에 띄면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보낸다. “내가 보기에 상당히 흥미로운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말

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으레 웨슬리는 책 몇 권을 갖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특히 한국인은 외국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승낙하면 미국 최종 방문지의 주소를 받아 그곳으로 최근 출판된 책 몇 권을 주문해 우송되게 해서 나중에 한국에서 전달받는다.

내가 수년간 아바서원에서 일하는 동안 출판한 책들 가운데 웨슬리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책들이 있어서 지금도 2-3개월에 한 번씩 4-5종류를 몇 권씩 주문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곤 하신다.

몇 개월 전 웨슬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모아놓은 수천 권의 책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던 중 용인에 소재한 중국인 관련 신학교의 요청을 받고 그곳에서 신설하는 도서관에 많은 책을 기증했다. 며칠 동안 문래동 웨슬리 도서관에 오셔서 모든 책을 하나씩 살펴본 후 약 이천 권을 흔쾌히 내어주셨다.

웨슬리는 대학생 시절 <Profitable Bible Study>(Wilbur Smith, 1939년 초판, 현재 웨슬리 소장본은 1951년판; 목사와 성경공부 학생을 위한 100권의 추천도서 수록)를 접한 것을 계기로 양질의 복음주의 기독교 서적에 관심이 생겨 IVF 수련회 북테이블을 담당했고, 이후 한국에 와서도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 헨리 모리스(Henry Morris), 칼 헨리(Carl Henry) 등 많은 저자의 책을 소개하고 판매했다. 1970년대 말부터는 개혁주의 세계관을 소개하는 여러 책을 스티디 그룹에서 공부하도록 주선했고 훗날 IVP를 비롯한 여러 출판사를 통해 한국어로 한국인 독자들 손

에 주어졌다.

웨슬리가 지난 57년 동안 한국에서 특히 대학원생과 교수 등 지식인을 대상으로 수행해온 이른바 '기독교 지성 사역'은 항상 문서를 매개체로 삼아 이뤄졌다.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신간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주문하고 소개했던 그의 수고가 더 요긴했고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번엔 국적취득을 위해 웨슬리의 귀화를 추천했던 1000여명의 밋진 자들 중에 문서를 통한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흔히 웨슬리는 스스로를 '책 장사'라고 소개하지만, 그의 집과 IVP 사무실과 문래동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평범한 '책 장사'가 아니다. 성경책별 주석들, 신앙과 학문의 통합, 직업과 신앙, 기독교 변증서, 신학 서적, 기독교 교육 관련 도서, 한국에 관한 영서, 고전적인 일반 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을 보유한 참으로 '지성적인 문서사역자'이다. "딱 맞는 책을 딱 맞는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그의 철학이 우리 각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리도 양질의 문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본다. **FAITH & LIFE**



글쓴이 홍병룡



현재 출판기획 및 번역 프리랜서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KCSI) 개척 멤버 중 한 사람으로 연세대학교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기독교학문연구소(ICS) 등에서 공부했고, IVP 대표 간사, 도서출판 아바서원 대표를 역임했다.

웨슬리에게서 받은 책들과 나눈 대화: 내 성경적 관점을 형성하다

홍종인 (서울대 화학부 교수)



내가 웨슬리 선교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1학년 때였으니 지금부터 벌써 44년 전이다. 나는 당시 선교단체에서 하는 특강,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IVP 책을 중심으로 유익한 서적들을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내가 대학에 다녔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온 캠퍼스가 떠들썩 하였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고민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는 꾸준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교단체 형제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역사관, 정치관 등에 관한 책들을 읽고 밤늦게까지 토론하며 올바른 관점을 가지려고 애썼던 기억이 난다.

대학 3학년 때에는 과학사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과학사에 관계된 책을 읽고 요약문을 제출해야 했다. 나는 그때 선교사님의 소개로 네덜란드의 과학사가 호йка스(Reijer Hooykaas)의 ‘근대과학의 태동과 발전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쓴 <칼빈주의>

라는 책을 읽고 내가 평소 고민하던 내용을 너무도 명쾌하게 정리해놓은 것을 보고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일반적으로 근대과학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 호йка스는 어떻게 종교개혁에 의해 태동된 개신교, 즉 성경적 기독교가 근대과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잘 설명하였다. 종교개혁 이전, 즉 중세까지는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반하여, 종교개혁 이후에는 창세기의 관점을 회복함으로써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었다. 즉, 성경적 기독교의 회복은 바로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호йка스의 주장이었다. 나는 과학도로서 호йка스의 이러한 분석이 큰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카이퍼의 책은 생각의 바다에서 방향하기 쉬운 대학 시절에 내 생각의 틀을 성경적으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는 당시 카이퍼의 책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역사, 예술, 가정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포괄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야가 활짝 열렸던 기억이 난다.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즉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80년대 중반에 유학의 길에 올랐을 때 미국에서 웨슬리 선교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코스타 사역이 시작되면서 미국에 들어와 그리스도인 유학생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었던 선교사님은 동부를 오르내리며 유학생들을 만나 인명록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셨다. 당시 맨하탄 브로드웨이와 110번가 사이 버거킹 옆에 있는 '다이너스티'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선교사님을 대접하였는데 남은 것은 따로 선교사님이 싸가신 기억이 난다. 가끔 만날 때마다 과학과 종교의 문제, 교육 등에 관한 소책자, 정기간행물, 유인물들을 한 뭉치씩 들고 와서 보라고 하셨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라고 복사물을 한 뭉치씩 두고 가셨던 기억이 난다. 나는 선교사님이 주신 책의 반의반도 읽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읽기 힘든데 또 주고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좀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결같이 주시는 사랑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고물 자동차 뒤쪽에 책이 담긴 상자를 가득 싣고 다니며 형제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서 교육학, 문학, 심리학을 전공한다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들의 전공과 관련 있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책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다. 어느 더운 여름에 선교사님을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 이후 선교사님을 웨슬리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만날 때마다 몇 번인

가 또 초대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사실 선교사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선교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 규칙적이거나 잦은 만남은 아니지만,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오셔서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꽤 시간이 지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지면 또 연락을 주시곤 하였다. 여느 어른들과의 관계 같으면 상대방도 한두 번쯤은 먼저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연락이 끊어질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으시고, 계속 베풀고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주는 분'이셨다.

웨슬리 선교사님에게서 받은 책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 나도 모르게 성경적 관점과 생각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을 보게 된다. 겉으로는 전혀 선교사 같지 않지만 뼈속 깊이 문서 선교사로서 한결같이 헌신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웨슬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린다. 57년을 한국의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을 위해 살아온 웨슬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 국적을 받게 되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란다. **FAITH & LIFE**

* 이 글의 많은 부분은 <사랑해요 웨슬리 선교사님>(예영, 2004)에서 가져왔음.



글쓴이 홍종인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1993 ~ 현재)이다. 서울대 화학부 학부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고, 미국 컬럼비아대 화학과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MIT 대학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서울대학교회 운영위원장과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캠퍼스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 선생님의 삶

김종호 (IFES 동아시아 부총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1967년이고, 웨슬리 선생님이 한국에 오신 것이 1965년이니 그분은 나보다 한국 땅에 더 오래 사셨다. 하지만 선생님의 존재감은 졸업 후 IVF(한국기독교학생회) 간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대학생 시절 우연히 접한 IVF에서는 신입생 시절부터 책을 읽게 했고, 첫 여름방학에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모임이 열려 나도 참여했다. 그 뒤로 책을 읽고 권하고 구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 시절을 보냈다. 1학년 1학기 소그룹 리더는 내게 본회퍼(Bonhoeffer)의 글을 복사해서 읽게 했고, 무슨 소린지 도통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억만 남아 있지만, 그렇게 존 스토틀(John Stott),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 로이드 존스(Lloyd Jones),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 니컬러스 월터스토프(Nicholas Paul Wolterstorff) 등의 저자를 접하며 대학 생활을 했다. 캠퍼스에서는 <사랑의 띠>라는 자체 회지가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어, 글을 쓰고 고치고 나뉘어 출판하는 분위기도 경험했다.

당시 내가 다닌 교회에서는 이런 기독교적 사고 훈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철저한 이원론 신앙을 가진

채 대학생이 되었고, 신입생 시절 식목일 즈음 주말에 IVF 봄 수련회를 갔을 때 특강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이성 교제’라서, 속으로 “이성 교제 같은 세속적인 주제를 왜 그리스도인 수련회에서 다루는 걸까?”라고 의아했던 기억도 있다. 내게 신앙은 삶의 여러 영역 중 한 부분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특별히 지적인 고민과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세상이었다.

간사가 되고 나서 IVF 사무실에 가면 벽안(碧眼)의 외국인 한 분을 간혹 볼 수 있었다. 어떤 분인지 신분을 알게는 됐지만,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기회는 별로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IVF 간사 일을 중단하고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로 유학길에 오르기 전 웨슬리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많은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다. 당시 유아였던 우리 첫째와의 만남도 그렇게 이어졌고,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집 아이들의 안부와 진로 선택의 고민,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시고 챙기신다.

선생님은 토목공학을 공부하던 학부생 시절 버지니아 공대에서 IVF 활동을 하셨다.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컸기에 다정다감한 관계를 맺는 일이나 표현하는 것에는 서툴지만, 뭐든 삶에 익힌 철

학과 원리는 중심에 간직하고 일관되게 사셨다.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는 자기 삶을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했고, IVF 모임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해외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한 소망도 생겼다.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마침 한국에서 근무할 사람을 찾기에 주저 없이 자원해 한국에 오셨다. 그게 1965년이다.

사람의 눈에는 관심사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른 법이다. 웨슬리 선생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에게 기독교적 사고의 훈련이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 지성 운동'의 1세대 선배들로 불리는 분들을 만나 책도 권하시고 어렵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그들의 진로 선택과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일을 하셨다. 한편, 본인이 IVF 활동을 하셨고 문서 사역이 갖는 의미를 아셨기에 IVF가 한국에서 출범하도록 산파 역할을 하셨고, 기독교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IVF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역할을 하셨다. 내가 캠퍼스에서 경험했던 자연스러운 문서 운동은 선생님의 평생 헌신에 크게 힘입은 것임을 지금에는 명확히 보고 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심대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다.

내가 선생님과 나눈 뜻깊은 추억 중 하나는 내 소아마비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스탠 토폴(Stan Topple) 박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기억이다. 토폴 박사는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소아마비로 장애를 얻은 환자들을 수술하는 일을 하셨다. 나는 생후 9개월 얻은 소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에 장애를 얻었고, 그 장애를 개선하는 수술을 중학교 1학년 때 애양원에서 받았다. 그때 집도의가 토폴 박사였다. 그 후 전

혀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 2009년 애양원 100주년 행사 참석차 방한하신 토폴 박사를 웨슬리 선생이 연결해주어 29년 만에 다시 만났다. 토폴 박사도 학생 시절 IVF 활동을 하셨기에, 자신이 오래전 수술한 학생이 IVF 간사가 되어 섬긴다는 소식에 무척 감개무량해 하셨다.

한 인생의 형성기인 대학생 시절, 그들의 삶에 필요한 자양분과 영향력은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학부생 시절 IVF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알아갔고 인생의 꿈을 키워간 웨슬리 선생님의 한국행은 순수하고 소박한 개인의 결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독교적 사고력에 대한 관심사와 일관된 삶은 한국의 '기독교 지성 운동'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 영향력의 수혜자들 중 하나가 나 같은 무지한 청년이었다. 신앙을 지성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자기의 신앙이 매우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소통될 수 있는 것임을 배우게 해준 곳이 IVF였고, 그 배후에 웨슬리 선생님과 같은 분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우리 아이들은 웨슬리 선생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아버지 한 분이 청년 시절부터 평생 꾸준히 걸어온 길은 결국 IVF 기독교 학생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온 복음주의 지성 운동의 결실을 맺었다. 그 수혜자인 나는 그의 삶을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기념한다. 그분의 친구가 되어 살아왔고 그분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은 진정한 특권이고 감사의 제목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종호



IFES(국제복음주의학생회) 동아시아 부총무로 일하고 있다. 1992년부터 IVF(한국기독교학생회) 간사로 일했으며, IVF 대표(2011~2018)를 역임했다.

의료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

김민철 (의사, 한국 인터서브 이사장)

내가 처음 웨슬리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1974년 의예과를 다닐 때였다. 그는 상하의가 통으로 연결된 청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때가 묻어 있었다. 버지니아공대 출신인 그는 당시 전주 예수병원에서 관리부장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1972년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신축 병원의 건물뿐 아니라 의료기와 모든 설비를 총괄하고 있었다.

자신을 배관공(Plumber)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공대 출신 기술자가 책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내 귀에도 들렸다.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만남이 시작된 것이었다. 지금처럼 미리 약속할만한 방법이 별로 없던 시절인지라 나는 무작정 전주예수병원을 찾아갔고, 관리부 창고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에서 웨슬리를 만났다.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도서 출판이 활발하지 못했던 때였고, 신앙적, 지적 갈증을 덜기 위해서 용돈을 아껴 새벽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로 서울에 가곤 했다.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가 문을 열면 서점 한쪽에 있는 외국도서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시절에 만난 웨슬리는 그 이래로 변함없이 ‘문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에 너무나 정확히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

전주의 중화산동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여러 학교들(신흥중고, 기전여중고, 한일여자신학교 등)과 전주 예수병원이 있어서 꽤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내가 본 선교사들은 대부분 고개를 들고 올라다보아야 할 만큼 키가 큰 것 말고도 여러 면에서 다가가기에는 적잖이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말투도 부드럽고 위압적인 태도나 외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처음 만난 그는 키까지 작아서 한국 사람과 쉽게 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964년에 한국에 온 이래 구순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그의 삶은 내 첫인상과 다르지 않았다.

처음 받은 책은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의 <조직신학>을 요약한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이라는 책이었는데 대학생 때 신학을 혼자서 공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의사가 된 후로는 자연스럽게 의료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살아낼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책과 논문을 보내 줌으로써 끊임없는 자극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 일하는 곳이 어디이든 질문하는 자세로 산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에서도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세계관적 몸부림으로 이어지게 한다. 생명의 기원과 시작과 끝, 삶의 질에 속하는 윤리적 문제를 대면하면서(?), “의료는 인

술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라고 강조하는 병원 경영자 회의에 앉아있으면서, 국가적 의료 시스템이 왜곡시킨 의료 현장을 안타까워하면서, 나아가 르완다 난민촌이나 선교지 나이지리아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의료 선교를 수행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료인은 아니었지만 웨슬리 선교사님이 던져준 도전은 늘 나를 따라와 내 삶의 현장에 있었다.

사실 그는 흔히 선교사들이 시도하는 큰 프로젝트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한번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 절대 놓지 않았다. 그제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지 않을 곳은 단 한 평도 없다”는 카이퍼(A. Kuyper)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의 방식대로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온 것이다. 그는 다양한 영역에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에게 책을 매개로 다가가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를 만난 각 사람에게도 선물이었지만, 그가 서로를 연결하고 만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어준 것 또한 IVF와 기독교학 문연구회 등과 같은 많은 열매로 맺어진 선물이었다. 요즘에 선교에서 BAM(Business as Mission)이나 자비량 선교가 중요한 흐름의 하나가 되었지만, 그는 일찍이 그 길을 택했다. 전주예수병원에서 일할 때나 미군 부대와 원조로 진행된 수원 지역 지역개발사업에서도 전문 분야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으로 책을 구하여 IVF는 물론 개인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수고를 평생 해온 것이다. 선교사 타이틀도 없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일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도움을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생명윤리 학자 페인(F. E. Payne)의 책 <Biblical Healing For the Modern Medicine>을 ‘한국누가회 출판

부’(CMP)를 통해 번역 출간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에 문외한이었던 나는 어떻게 번역 허락을 받을지 망설이고 있었다. 웨슬리는 저자에게 보낼 건본 편지를 써 보내주면서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웨슬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1935년에 태어났지만 1965년 30세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산 기간이 57년이 될 만큼 나이(87세)가 드셨다. 수년 전 건강이 나빠져서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지만, 그 외에 몇 차례 의료적 작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는 자신의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국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본인이 일했던 전주예수병원의 선교사 묘지가 있는 ‘선교 동산’에 묻히셨으면 하는 마음을 읽게 되었다. 나의 병원장 임기가 끝난 후여서 이 뜻을 전주예수병원에 전했고 후임 병원장과 전주예수병원 이사회는 흔쾌히 이를 허락하였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웨슬리 선교사님이 법적으로도 한국인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식과 지성의 틀을 견지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은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면면을 접하게 될 때마다, 이를 위해 50년 이상 낮은 땅에서 웨슬리 선교사님이 이어온 삶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길을 이어가기 위해 바통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용기를 내서 이원론적 삶을 선택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FAITH & LIFE**



글쓴이 김민철



한국 인터서브 이사장이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다. 전주예수병원 원장, SIM(Serving In Mission) 나이지리아 선교사를 역임했다.

웨슬리 선교사님께 배운 기독교 교육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웨슬리 선교사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기념하는 원고 청탁을 받고 선교사님과의 일을 추억하다가 거꾸로 만일 그분이 없었다면 내 삶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기독교 학교’(Christian School)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1996년 기독교 학교를 연구하겠다고 미국과 캐나다의 몇몇 기독교 학교를 방문하지도 않았을 테고, 미국 워싱턴 주 벨뷰(Bellevue) 시에 가서 알버트 그린(Albert Greene) 박사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테고, 벨뷰 기독교 학교(Bellevue Christian School)에서 연구년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1997년 여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애틀 공항에 내렸을 때 그린 박사님은 손수 마중 나오셨다. 당시 연세가 80대였던 박사님은 입국장에서 지팡이를 짚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몸이 불편하여 짐 옮기는 것은 도와줄 수 없다고 미안해하셨다. 나중에 그분이 장애인용 차를 직접 운전하여 벨뷰에서 시애틀 공항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일과 더불어 반년 남짓한 체류 기간 동안 그분이 우리 가족에게 베푸셨던 호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린 박사님의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은 그해 여름방학에 교사 교육용 교재로 사용하

신 원고였는데 1998년에 책으로 출판되었고, 번역본은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CUP)라는 제목으로 2000년도에 출판되었다.

만약 웨슬리 선교사님을 몰랐다면 나는 교직 생활 내내 기독교 신앙과 학문 간의 인지적 부조화를 그럭저럭 견디면서 은퇴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내 서가의 적잖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서적 중 대부분은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선교사님을 교직 초기에 만나게 된 덕분에 나는 그동안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의 증인된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때로는 그 응답을 얻으며 기쁘고 감사하게 교수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잊을 만하면 메일로 보내주시는 웹사이트를 열어볼 때마다 내 마음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린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메일을 받았다.

만약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나는 ‘기독교학교자료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웨슬리 선교사님은 매우 열정적으로 ‘기독교 학교’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애쓰시는 만큼 기독교 학교 네트워킹 사역이 진척되지 않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2002년도에 학교 앞 혜화동에 '기독교학교자료 센터'를 시작하였다. 이 명칭도 선교사님이 지어주셨다. 문서로 밝힌 센터의 설립 취지는 거창했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선교사님의 "나 늙어가고 있어!"(I'm getting old)라는 협박성(?) 발언 때문이었다.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내가 보기에 선교사님은 매우 연로하여 곧 돌아가실 것처럼 보였나 보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의 '거룩한 부담'으로 센터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때의 선교사님과 엇비슷한 나이가 되어 보니 그 판단이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어쨌거나 나는 센터에서 '기독교 학교'의 비전을 가진 다양한 분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기독교 학교'의 운영자와 교사, 기독교 홈스쿨 관련자,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대학교수, 목회자, 대학원생 등. 그분들과 함께 '혜화동 포럼'도 갖고 교육 자료 개발 작업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 학교의 실제(practice)를 조금씩 파악하게 되었던 것 같다. 선교사님의 칠순 잔치 때 자칭 '미녀 삼총사'로 뭉쳤던 오춘희 교수님과 백인숙 선생님과도 지금도 선교사님의 생신도 가끔 챙겨드리면서 우정을 나누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롤 모델'(role model)을 가까이 알고 지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선교사님은 노년에 자주 병원 신세를 지셨다. 그래서 입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영영 못 뵈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었다. 병문안 갈 때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매번 오뚜기같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셨고, 그때마다 나는 신실한 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이분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 말씀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KJV, 딤후 4:7-8)가 아닐까 한다. 단지 한국 땅에서 평생을 묻어 선교사 사역에 바쳤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선교사님은 내가 처음 뵈었던 1995년부터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된 종'(good and faithful servant)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언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베푸실 상을 상상해 보면 부럽기도 하다. 나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은 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게으르게 살아왔으니 지금 천국에 간다고 해도 받을 상은 얼마나 초라할까. 아니, 상은 고사하고 부끄러워 주님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할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FAITH & LIFE**



글쓴이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이다. 이화여대 교육학과(유아교육) 학사, Eastern Michigan 대학교 유아교육학 석사, Michigan 대학교 유아교육학 박사과정(Ph.D)을 졸업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아동문학·미디어 교육', 유아미디어 교육, 유아교육, 아동문학, 유아언어교육, 기독교유아교육 등이다. 한국어린이분학교육학회 회장, 한국기독교유아교육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그림책의 그림읽기>(공저), <그림책의 이해, 1.2>(공저), <세계 그림책의 역사>(공저), <즐거움 그림책 쓰기: 그림책 작가를 위한 창작 입문서>(공저) 등이 있다.

여전히 청년들과 함께하시는 현장의 캠퍼스 선교사

이경건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웨슬리 웨스트워스 선교사님께서 특별공로자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일을 축하드립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 정신을 배운 후학으로서, 웨슬리 선교사님에 대한 기억 3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1.

내가 웨슬리 선교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17년 여름으로 기억된다. 선교사님은 수십 년 동안 그러셨듯이 대학원생들을 만나러 학교에 방문하셨고, 나도 인사를 드리며 과학교육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벽안(碧眼)의 선교사’로부터 내가 들은 첫 일성은 “너 참 쓸모없다!”(You are useless!)였다. 처음 뵈는 분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적잖이 당황했지만, 이후로 선교사님을 꾸준히 알아가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선교사님은 나를 만나기 직전에 교육학을 비롯한 여러 전공의 대학원생들을 만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인 공부에만 함몰되지 않고 실제 삶과 가르침으로 신앙 실천을 보여야 함을 역설하신 직후였던 것이다.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건네신 이례적인 인사(?)는 나에게 전혀 불쾌

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공부가 쓸모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님께서 늘 진심어린 말과 행동으로 대학원생들을 권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분에게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은 그때의 인사에 대해 “I’m sorry, my friend,”라며 미안해하셨다. 하지만 나에게겐 그때의 강렬한 기억마저 감사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2.

웨슬리 선교사님을 뵈러 몇 명의 교육학 전공 대학원생들과 함께 신촌 IVF 사무실로 찾아갔다. 모임이 끝난 후에 다른 분들은 각자 일이 있어 헤어졌지만, 나는 웨슬리 선교사님께 저녁 식사 대접을 하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왔기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 웨슬리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끓이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구리판에 구운 불고기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식당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었다. 거의 30년 전 전주에서

먹어본 이후 처음이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그동안 어른을 잘 모시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기도 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선교사님의 시선이 한 쪽을 향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보시는지 여쭙보니 “저기 있는 노인을 보고 있어”(I’m seeing the old man over there)라고 하셨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는 식당 사장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수염까지 백발이 성성한 그분은 불고기를 양념에 재우며 섞는 작업에 집중하고 계셨다. 할아버지를 말없이 바라보는 선교사님의 눈빛은 깊은 세월을 담고 있는 듯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던 밤에도 대학원생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계셨다던 선교사님은, 어쩌면 그 할아버지를 통해 한국에서 젊은 날을 헌신한 자신을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

3.

웨슬리 선교사님이 한국 국적을 수여 받기 며칠 전, 선교사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다. 조만간 서울대를 다시 방문해주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미국의 모 기독교 학술단체를 소개해 주시기도 했다. 다가온 국적 수여식에 대해서 여쭙보자, ‘명예 시민’(honorary citizen)증을 수여 받는 행사가 많이 긴장된다(anxious)는 말씀을 하셨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식적인 자리에 서는 것이 익숙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선교사님은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에서 늘 맨 뒷자리에 계셨다. 대학원생과 후학들을 앞세우면서, 정작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잔치의 아랫자리에 앉은 삶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다. 적잖이 나이가 드셨음에도 앞에 나서거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긴장된다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호기롭게 “선교사

님께 국적을 수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예를 얻는 거고, 행사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이 긴장해야 할 거예요. 선교사님이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라고 말해버렸다. 나중에 기사를 보니 선교사님께 국적을 수여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나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내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이다.

조만간 다시 웨슬리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웨슬리 선교사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선배님과 그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경건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 학부 시절 화학교육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했고,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와 전국기연 네트워크 대표를 맡았으며, 대학원 시절에는 서울대기독교대학원생모임 대표와 대학총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다.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편집인이다.

웨슬리 윈트워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고문

웨슬리 윈트워스(원이삼) 선교사님(87세)은 1965년 한국에 처음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줄곧 한국 기독교 지성 운동의 증인이자 산파 역할을 해 오셨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57년 동안 교육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오신 선교사님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공로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 기독교 지성 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받은 웨슬리 윈트워스 선교사(사진 ES그룹 김종현 회장 제공)

일시 & 장소 2022년 3월 22일(화), 오후 9시, 온라인(Zoom)

인터뷰어 장수영(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동역회 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동역회 이사),
김셋별(오하이오주립대 교육학 박사과정, 동역회 정회원)

정리 & 사진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장수영 우선 지난 2월 24일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받으시고 한국인이 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웨슬리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냈던 지난 모든 시간들에 감사하고,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양성만 선교사님께서 1965년 한국에 처음 오시기 전까지의 가정 배경, 성장 과정, 대학 생활 등,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웨슬리 저는 뉴잉글랜드라는 지역에서 자랐어요. 당시 그곳은 청교도 윤리가 지배적이어서 주일에 영업하는 데가 약국밖에는 없을 정도였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정도로 이해했죠. 아버지의 재혼 후, 새어머니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돌아보면 그 시기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양성만 대학생이 된 이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선교사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 것이 무엇인지요? 어떤 굴곡이 있었나요?

웨슬리 어쨌든 저는 1953년 버지니아 공대 재학시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당시의 기독교 문화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했기에, 복음을 이성과 지성의 측면에서도 안내해 줄 그리스도인 학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기독교 학문 또는 기독교적 지성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게 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양성만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나요? 한국 입국 이후 추구하신 일의 방향이 어떻게 발전, 변화되었는지요?

웨슬리 대학생 때 IVF(Inter Varsity Fellowship) 소속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성경을 가르쳐 준 선배, 멘토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셈이에요. 그때 IVF의 선교 그룹에서 한국의 선교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1950년대 한국이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임을 알았습니다. 학부 졸업 후에는 같은 대학 '위생공학'(sanitary engineering) 석사과정에 진학했고, 과정 중에 휴학하고 하사관으로 군 복무를 했어요. 군 제대 후에는 1년 동안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캔자스시에 있는 Black & Veatch라는 '위생공학' 업체를 다니면서, 해외 파견직에 관심이 있음을 밝혔는데, 어느 날 누가 한국에 자리가 났는데 갈 생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요"라고 답했어요.

양성만 선교사님의 직업은 엔지니어이십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지요. 한국 입국 첫째(1965년)부터 줄곧 광주기독병원의 신축과 증축 현장 감독으로, 또 1973년부터 약 3년 동안 전주 예수병원 안전담당자, 신축공사 감독 등으로도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웨슬리 제가 한국에 와서 어쨌든 초창기 엔지니어로서 줄곧 참여했던 중요한 일은 청계천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인 반도 호텔에서 머물고 그랬죠. 그 일이 끝났을 때 함께 한국에 나와서 일했던 선배 엔지니어들은 돌아갔지만,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기독병원에 의료선교를 하러 와있던 대학 친구들이 있어서 광주를 방문했고, 그 계기로 입국 첫해부터 광주기독병원의 병동 신축 현장 감독으로 약 1년간 일했고,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약 2년간 증축공사 감독으로도 있었지요. 또



1973년 11월부터는 약 3년 동안 전주 예수병원의 관리와 안전담당자로 일했습니다.

장수영 선교사님은 1980년 초 한국 창조과학회, 그 이후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또 기독교학문연구회 설립에 중요한 도움을 주셨는데요. 한국의 기독교 학자, 학문계에 어떤 필요가 있다고 보셨는지,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웨슬리 글쎄요. 한국 창조과학회는 제가 초기에 그 구성원들을 크게 돕거나 동기부여 해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창조과학회 회원들한테 책을 제공하고, 기독교 신앙과 과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름 도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980년 CCC 정동 채플 집회에 미국 창조연구소(ICR)의 소장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와 탁스톤(Thaxton), 월터 브래들리(Walter Bradley), 듀안 기쉬(Duane T. Gish) 등이 와서 기독교 신앙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갔지요. 저는 헨리 모리스와 의견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존경스런 학자이자 교수였어요. 당시 한국의 그리스도인 과학자들, 즉 연세대의 김정환 교수, 카이스트의 김영길 교수 등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수영 1986년부터 KOSTA 조직에도 참여하시고 또 구성원들을 도운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과 결과를 소개해 주세요.

웨슬리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어지간하면 한국 유학생들과 늘 연결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미 절반 정도는 한국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지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로 미국에 돌아가 부모님과 몇 년이라도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느껴서 미국으로 돌아갔었지요. 그때는 제가 플로리다에서 오래 머물렀던 시기인데,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에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학생 집단을 만나면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미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관련 책을 전달해 주곤 했지요. 유학생들을 주로 만나려 했고, 그중에는 한국인들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코스타에 함께 참여해서 돕기도 했습니다.

김섯별 <사랑해요, 웨슬리 선교사님>(예영, 2004), <문서선교사 웨슬리 Wentworth>(IVP, 20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교사님은 많은 한국의 젊은 학자들 사이의 친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웨슬리 이유라고 하면, 일단 변증적 사고에 관심을 가

졌고, 저 자신이 기독교 지성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시작점이겠죠. 저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인데요. 제가 자유주의 기독교 신앙을 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과 젊은 학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학문’(Christ and Scholarship)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책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어렵지만 계속 투쟁해 나가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지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생각했지요.

장수영 선교사님을 가까이 사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선교사님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초인적으로 겸소한 선교사님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있지요. 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셨나요?

웨슬리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의 뉴잉글랜드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가난했고 어려서부터 쓸 돈은 항상 스스로 벌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게 되는 면이 있네요.

장수영 한국에서 지난 5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웨슬리 글썄요, 제가 과거지향적 사람이 아니라서 특별히 슬펐던 일로 기억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말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있었습니다. 한센인들의 한숨과 눈물이 있는 여수 애양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어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환자의 몸을 거리낌 없이 부어잡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의사 친구가 전해준 말인데요, 그 의



웨슬리 선교사 한국선교 50주년 기념-출판기념회(2015년 9월)

사 선생님에게 환자를 치료할 때는 고무장갑을 끼라고 권했더니 여기는 기독교병원이라며 그 권유를 거절했다더군요.

김새별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웨슬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과거와 현재라... 저는 늘 ‘앞’만 바라보고 달리기 때문에, 그다지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하하). 그래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멘토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생각나는 예는 손봉호 교수와 강영안 교수의 관계입니다. 제가 강영안 교수를 손봉호 교수에게 거의 무작정 연결해 준 면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웨슬리 선교사 고신대 명예교육학박사 수여식(2004년 2월 19일)



웨슬리 선교사(1935년생) 회갑기념 축하 사진

김셋별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웨슬리 더 나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우선 ‘연결’과 ‘협동’일 겁니다. 김셋별 학생에게도 이전에 부탁했듯이, 다른 그리스도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과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여야 해요. 일단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격려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함께 배움을 장려할 수 있을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식 교육’(Christian schooling)을 이야기할 때, 항상 ‘협력’(Cooperation)을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에 치우쳐있어요.

김셋별 최근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웨슬리 현재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 기억력 문제예요. 치매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뭔가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자꾸 늘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느낍니다. 다행히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병원에는 필요할 때마다 쉽게 드나드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래도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실버타운에 갈 수도 있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진 않습니다.

김셋별 선교사님은 요즘도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웨슬리 후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뭘 배웠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는지, 오늘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한 시각과 세계관을 아이 때부터 키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의 저명한 그리스도인 학자 친구 중 한 명은 임금이 더 낮은 직업으로 바꾸고 이사했는데, 그 이유가 오직 아이에게 좋은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였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헌신적 교육입니다.

장수영 선교사님은 한국 역사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시길 바라실까요?

웨슬리 그저 한 명의 ‘(주님의)종’, 내지는 ‘봉사자(servant)’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FAITH & LIFE**

신앙과 학문

논문투고안내

지난 한 해에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신앙과 학문>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 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마감일: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 ◆ 202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상세안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반 문의: gihakyun@daum.net (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 문의: 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감사의 예배’와 ‘나눔의 섬김’ 사이에서

김철수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기학연 기획부회회장)



돌아보아 은혜 아닌 것 없고, 살펴보아 사랑 아닌 것이 없는 내 삶의 모든 족적은 ‘말씀과 찬양으로 버무려진 기적의 연속’이었다. IMF의 환란이 극심했던 해에 모교에서 받은 대학원생 해외연수장학금으로 영국 석사과정을 준비하던 중에 치솟는 환율에 대한 염려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큐티 중에 주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 14:31)라는 말씀을 받고 크게 회개하였다. 그 후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서 합격통지서와 장학금이 도착하여 학비를 충당했고, 한인교회에서 예배 통역을 하면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웠으며, 돌아와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는 전주대 교양학부에서 기도하는 학교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또한 체험했다.

9년간의 전주 생활 중 나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은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것이었고, 나의 모교이기도 한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의 재학생이었던 아들을 등교시키고 내려오는 길에는 항상 교정을 돌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르곤 했다. 그러던 중 광주동명교회의 안수집사로서 아침 7시 50분에 시작

하는 1부 예배의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대장 집사님이 사임하게 되어, 그분의 잔여 임기인 1년 동안 찬양대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 후 다시 정식으로 1부 예배의 찬양대장으로 임명되어 2년 동안 섬겼는데, 총 3년의 임기가 끝나갈 즈음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모교인 조선대학교의 기초교육대학에서 교양영어 교원공채 공고가 났고, 3차의 심사를 통과하여 마침내 모교의 교수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4년 후 모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전공학회인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의 학회장을 맡아 2년간 섬기면서 무사히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와 월간 독회 등의 각종 행사를 치러냈으며, 학교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영문과 박사과정 수업과 논문지도를 진행하기도 했다.

교회학교 교사 시절에 ‘창조과학회’ 소속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던 중 내가 공부하는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주대학교 시절에 기독교세

계관학술동역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당시에 김승욱 교수님을 만나서 격려를 받은 기억이 있고, 2013년부터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논문을 발표하고 〈신앙과 학문〉에 간간히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충신대 재직 중인 동서 손병덕 교수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박문식 회장님의 추천으로 기획부회장 겸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거나, 때로는 회장님을 도와 기획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의 편집위원으로서 투고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심장과 지식인이자 전문가의 냉철한 지성이 직조해 내는 절묘하고도 아름다운 학문의 양탄자를 만지는 듯한 흥분과 전율을 매번 느끼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때로는 부패한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때로는 집을 떠난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간절하고 따뜻하게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리스도인 지성들의 업적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발달이 가져온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소위 'MZ 세대'라 불리는 신세대의 등장, 지금도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대선 후 유증 등, 이 모든 현상은 현재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의 위상을 시험하고 도발하며 억압해 오고 있으며, 그 강도는 점점 더 증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한 도발이나 공격의 가장 전형적인 내용은 바로 교

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뜻을 구하느라 (reach for) 정작 교회 밖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손을 뻗지(reach out) 못한 그리스도인의 위선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믿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살펴보면, '받을 수(受)' 자 가운데에 '마음 심(心)' 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분에게서 받은 심장의 온기가 우리 가운데 충일하여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일진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령과 학력과 소득수준의 차이를 떠나서, 개인이거나 단체거나 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의 예배(reach for)와 그로부터 우리나오는 더할 나위 없는 진정성 있는 나눔과 섬김(reach out)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그 균형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철수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과 대학원 서양학과에서 영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대 영미 소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평에 관심을 두고 있다. 광주·전남권 기독교수 연합회장으로서 캠퍼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 기획부회장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캠퍼스라는 바다에서

장동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3학년)



캠퍼스는 사회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되었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수식어는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 신문 1면 상단의 ‘취업사관학교’라는 광고야말로 대학과 사회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문구이다. 학생들에겐 서로의 화평이나 행복보다는 각자의 학점과 진로가 더 큰 관심사이다. 잘 지내느냐는 질문은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떻게 구직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으로 많이 대체되었다. 같은 길을 가는 비슷한 계층의 친구들끼리만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체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캠퍼스 생활과 공부가 좋은 상표가 붙은 증명서를 얻어 돈을 벌기 위함일 뿐인 것으로 전락했다. 사회적 갈등은 더욱 가감 없이 캠퍼스 안에서 재현된다. 캠퍼스 곳곳의 포스터와 대자보, 학내 커뮤니티는 극단으로 갈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사회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들은 대화 없이 온·오프라인 공간을 나누어 각자 점거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유지상주의·신자유주의’ 성향인 이들의 폭력적인 게시물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사회자유주의·여성주의’ 성향인 이들의 독선적인 주장들이 가득 펼쳐져 있다.

필자가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상표성과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다. 이는 극단적인 이야기들로 이어진다. 많은 학생, 심지어 일부 교수님들까지 ‘서울대’라는 자기 삶의 자리에 우쭐하여 자신만이 옳은 양 극단적인 이야기를 더욱 심하게 내뿜는다. 외

부의 여러 세력도 ‘서울대’라는 상표에 세상이 감탄한다는 점을 노려 이 캠퍼스에 진출하고자 한다. ‘서울대 학생’이라는 상표가 떨어지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까 졸업을 연기하는 사회운동가들, 십 년도 더 전에 졸업하고선 자신의 극단적인 주장을 포장하고자 학교를 들먹이는 이들 등.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1학년 3월, 이러한 캠퍼스의 모습들에 크게 실망했다. 세상과 구분되어 천천히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라는 기대는 어긋났다. 오히려 세상이 집약된 곳이었다. 주변에서는 내가 언제쯤 ‘서울대’라는 상표를 활용하여 취직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수업을 듣는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부진하다는 것에 노심초사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술이 해방구로 보였다. 소주를 매일 3~4병씩 마셔댔다. 일요일 낮에야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교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소주를 사곤 했다.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술이 다 깨지 않은 채 과제를 하고, 수업에는 늦고, 교수님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러면 나는 소주병에 비친 초록색 달만을 방향타 삼아 학교와 집을 오갔다.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 많은 학생이 학교에 실망감을 느낀다. 개중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마는 이들도 여럿이

다. 이들의 길은 다양하나, 삶의 소망을 잃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길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 기간에, 나는 다행히 캠퍼스를 떠나거나 나 자신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다. 좌절의 악순환 속에서도 대학교에 계속 붙어있었던 것은 캠퍼스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선배의 소개로 입학 즈음 인문대 기독교인 연합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야기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좋았다. 다른 날들엔 학교에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문대 기독교인 연합의 모임이 있었던 화요일만은 꼭 갔다.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결국 봄이 끝나가던 어느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밤새 소주 예닐곱 병을 마시고 집을 향하던 길이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살려 달라고, 삶을 붙들어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기도했다.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 공동체에서 들었던 기도들이 드디어 첫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

그 뒤로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학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이겨 내보기로 했다. 실망스러운 캠퍼스의 여러 모습, '서울대' 상표를 단 상품이 되길 바라는 주변의 시선은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로 구했다. 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새 시간은 흘렀고, 글을 쓰는 지금, 필자는 인문대 기독교인 연합의 대표를 맡아 새내기 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미약하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모두 아주 익숙한, 자신이 살던 땅의 현실에 고뇌하다가 좌절하여 배에 오른 두 나그네가 있다. 한 사람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 속 인물 이명준이며,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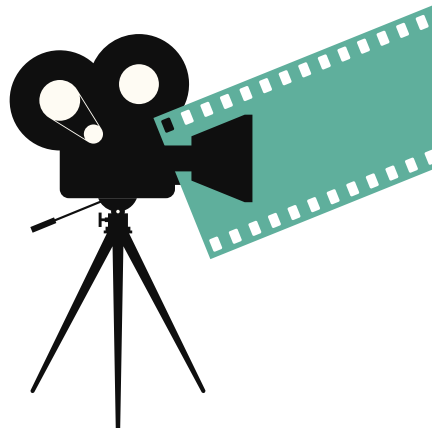
은 성서의 요나이다.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사이, 민족주의와 하나님 사이 등 둘이 갈등하고 실망한 내용에는 차이가 분명히 크다. 그러나 둘 다 자신이 추구하던 진리와 현실의 갈등에 지쳐 끝내 세상을 등지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망망대해 가운데에 한 사람은 가라앉았고, 한 사람은 다시 바다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올라선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던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래가 그의 몸을 받아주었던 이, 요나이다.

대학 생활에 실망하고 방황하는 많은 이들은 이 두 나그네를 닮았다. 캠퍼스 주위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요나들을 받아줄 신앙인들이 필요하다. 또, 바다로 뛰어들고자 하는 이명준들이 기도하는 요나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 시대에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 복음화와 신앙인들의 모임을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며, 글을 맺는다. **FAITH & LIFE**



 글쓴이 장동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3학년 재학 중이다. 인기연(인문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서울대 기독교인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학생 기사를 맡고 있으며, 중어중문학과 기도 모임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온사랑의 교회 청년부 소속이다.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책 : 웨슬리 선교사님 생각하기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미션(Mission)

〈미션〉(1986)이란 영화를 봤을 때 감흥이 지금도 아련하다. 아름다운 남미 이구아수 폭포와 웅장한 밀림이 매혹적이었는데, 펼쳐지는 이야기는 더욱 가슴 저리고 애절했다.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과정이 권력에 사로잡혀 대치하다 결국 약탈, 방화, 살인으로 치닫는 모습에 기독교, 선교, 사랑과 정의, 하나님 나라 등이 혼돈 속에 어지러웠다. 거룩한 선교의 이름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폭력이 행해질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의 주제는 영화평을 늘어놓자는 것이 아니니, 영화 초반으로 급선회해 보자. 가브리엘 신부가 원주민을 찾아가는 장면. 정글 안에서 어느 부족보다 자유롭게 살아가던, 그러나 외부인에게 폐쇄적이던 그들에게 접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부는 경계심을 풀기 위해 피리를 분다.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원주민들은 그에게 다가오고 만지고 붙어보며 신부를 맞이한다. 가브리엘의 마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한 손에는 복음, 다른 한 손에는?

영화 〈미션〉을 연결하여 웨슬리 선교사님을 생각해 본다. 이런 문구가 떠오른다.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책’. 기독교 역사와 선교에서 거의 숙어처럼 인용되는 문구의 또 하나의 변주이다. 사실 이 문구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목

수 출신이신 예수님은 ‘한 손에는 천국 복음, 다른 한 손에는 망치(?)’라고 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또 어떠신가. ‘한 손에는 복음, 다른 한 손에는 텐트’라고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의 다정한 친구이자 형님이신 웨슬리 Wentworth를 바라보자. 나로서는 그에게 이 말보다 더 적합한 표현을 찾을 길이 없어 보인다. ‘한 손에는 복음, 다른 한 손에는 책’. 그 책은 그런데 그냥 책들이 아니고 ‘바로그 책’(The Bible)과 연관된 책들이다. 성경에서 출발한 진지하고도 냉철한 숙고(熟考)를 여러 분야에 적용한 이른바 기독교 세계관의 책들이다.

한 손에는 우정, 다른 한 손에는 도전

웨슬리 형님은 잘 웃는다. 수십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웃던 얼굴이 지금도 한결같이 웃는다. 내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해, 1993년 8월,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찾아왔다. 당시 명칭인 ‘기학연’(기독교학문연구회) 모임에서였는데, 웬 남자가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피리를 든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느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친구,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는지? 이 책에 관심 있을 텐데”라고 말을 걸었다. 그 이후 웨슬리 형님은 이 책, 저 책, 쉬지 않고 책을 들이었다. 독일어권 자료로 공부한 터라 미국발 기독교 세계관 책은 많이 접하지 못해서 당황하기도 했고 “아이쿠, 분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에서야 이 낯선 형님이 IMF 전문 문서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번은 홍대역 근처 출판사를 방문했는데, 사무실 한쪽 책상 위에 널빤지를 침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충격보다는 감동이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 나아가 이 문서 선교사님은 솔로이면서도 기혼인 나에게 실제 생활 스타일에서 피해갈 수 없는 모델이 되었다. 철저하게 금욕과 절제를 생활하는 중세의 수도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 말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과식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밥으로 삼은 것은 예수 안에서 피어오르는 해맑은 웃음이 아닌지 싶었다.

도전은 계속된다

‘기학연’(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기세동’(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으로 변모하고 난 뒤에도 웨슬리 형님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책도 책이지만 사람을 연결하는 중매직업도 쉬지 않았다. 대체로 관련 학자, 연구자가 대상이었는데,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모임 때는 그에게 이런 인사를 듣기도 했다. “그 사람 만났어? 아직 안 만났어?” 추궁 같이 들리던 말이 나에게 도전으로 남았다. 기독교 세계관적 연구는 책하고 씨름만 해서 안 되는구나. 복음 안에서 학문이나 삶의 길을 가는 동료, 동지들과 연대하고 교제해야 힘도, 지혜도, 동기유발도 더 생기는구나. 그의 존재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 삶의 공동체로써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었다. 웨슬리 선교사

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훌륭한 코치로서 활약하고 있다.

양화진에 서서

어느 날 합정역 부근 양화진을 다녀왔다. 개화기 선교사님들에게 성경 하나 들고, 복음의 열정으로 찾아온 낯선 땅 대한민국은 얼마나 열악했겠는가. 그래서 양화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다. 또 많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풍토병에 숨졌다. 무엇이 이들을 이 땅에 오게 했을까? 예수님이 부르신 소명과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선교전략을 가지고 왔다. 어떤 이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교육’(스크랜턴의 이화학당, 언더우드의 연회전문, 베어드의 숭실학교 설립, 배재학당 그리고 전국에서의 기독교 학교들의 설립), 어떤 이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언론’(베델의 대한매일신보 창간), 어떤 이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의술’(알렌의 제중원 설립) 등. 이러한 표현의 유명한 고전은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카이퍼, 칼 바르트)일 것이다. 이제 웨슬리 선교사님에게 적용해 본다면 단연,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그 책들’이라 하겠다. “우리에게 피리 소리에 버금가는 책을 안고 다가온 다정한 형님, 이제 한국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 안에서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선교사님이 뿌리신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넬라 판타시아’를 계속 노래하도록 함께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의 기독교 지성 운동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한때 ‘기독교 미술은 곧 성화(聖畵)’라는 등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적이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미술을 인식해왔는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풍경화나 인물화 등이 ‘세속적’이라면, ‘성화’는 성별(聖別)된 것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일부 작가들 사이에 뿌리내렸다. 성경의 장면을 모티브로 삼거나 종교적인 이미지에 기울어졌던 것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경향은 그리스도인 작가들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청지기 역할을 간과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 작가들이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청지기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은 몇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기독교 미술’이란 개념조차 희미했을 때 이연호(1919-1999)는 한국 기독교 미술의 태동과 형성에 산과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를 창립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미술을 정착시키고 계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서봉남은 <기독교 미술>(1978)이라는 저서를 통해 성경 속 미술의 역사를 비롯하여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에서 현대 기독교 미술까지 개괄하는 등 기독교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군의 청년 작가들은 기성 작가들과 궤(軌)를 달리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창작에 임하였다. ‘기독교미술단체연합’(CAGO)은 미술문화캠프를 개최하여 기독교 세

계관을 연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시회를 가졌다.

그 후 중견 작가들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가세함으로써 힘을 보탰다. 1995년 한국미술인선교회의 심포지엄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만물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적 대안임을 믿고 고백한다. 우리의 미술도 창조, 타락, 구속의 틀 안에서 조명됨으로써 그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음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 선언은 미술을 신앙고백의 차원을 넘어 성경적 구조 법칙 아래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과거와 구분된다. 선언문을 작성한 오의석(대구가톨릭대학 교수)은 이후 이를 자신의 작품과 <로고스와 이미지>, <체현의 미학> 등의 연구로 구체화했다.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이자 화가인 박영은 개혁주의 예술론을 소개하였다. “기독교 미술과 역사적 과제”(1994)에서 기독교 예술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는 관점과 기독교로 문화를 변혁하는 관점으로 나누고, 각각의 장점을 설명한 다음 그리스도인 작가들이 성경적 견지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학자 이석우(1941-2017)는 <역사의 들길에서 만난 화가들>, <예술혼을 사르다간 사람들> 등의 저작을 통해 국내외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작가를 관찰할 때 그가 유의한 것은 작품에 내재된 실증적 사실보다는 철학적, 종교적 함의였다.

2천년대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합류하면서 이론적 기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단체 아트미션이 주최한 크리스천 아트포럼을 마치고 (2019)

들을 견고히 하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확산시키는 국면에 돌입했다. 최태연(백석대 교수)은 기독교 예술을 동시대적 국면으로 끌어내고자 했다. 특히 그는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 예술인의 현실적 대응에 주목하였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이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은 공통점을 지녔다고 보고 “다른 세계관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고 경쟁”하면서 세상 속에서의 복음 선포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는 기회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은 예술 분야에서 개혁주의 정신을 오늘의 역사적 현실과 미래의 도전에 부합한 형태로 재창조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창조 세계가 타락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을 때 예술가가 “구속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일원으로서 죄악 세상의 구속을 통해 살롬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형성에 이바지”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그는 문화예술을 통해 추구해야 할 비전은 살롬이며, ‘정의와 화평의 실현인 살롬의 추구’를 기독교 예술의 주요 의제로 설정한 바 있다.

라영환(총신대 교수)은 <모네, 일상을 기적으로>, <반 고흐, 삶을 그리다> 등 활발한 저술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예술 속에 구현되었는지 점검한다. 특히 그리스도인 학자로서 반 고흐의 삶과 작품 속에 흐르는 신앙적 철저함과 예술적 독창성을 밝힌 것은 성

과로 평가된다. 안용준(백석대 교수)은 칼빈 시어벨트(Calvin Seerveld)와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의 예술론을 연구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시각예술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유튜브의 ‘로고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배경락 목사와 ‘교회교육연구소’의 박양규 목사가 그러하다. 예술작품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채널을 구축했다. 안재경 목사는 네덜란드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개신교 화가인 램브란트와 고흐를 다룬 <램브란트의 하나님>과 <고흐의 하나님>을 출간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기독교가 진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C. S 루이스의 말처럼 지성인들의 예술 참여는 그 자체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문화 전반이 세속화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 운동이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할지 모르나 중심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예술계에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개혁주의 미술사학자 존 월포드(John Walford)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비전”으로 예술을 바라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램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문서가 사람을 만든다 : 한국을 사랑한 문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

이준봉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2022년 2월 24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세 명의 외국인에게 한국의 국적을 선사했다. 세 분은 모두 종교인으로서 각각 선교사, 수녀, 스님이었다. 이 가운데에 선교사는 바로 웨슬리 Wentworth(1935~)였다. 웨슬레 Wentworth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원이삼'이다. 대한민국은 이들을 특별공로자로 선정하였다. 국가안보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국적을 수여하는 것이다. 원이삼 선교사는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후에는 광주기독교병원을 설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학술 업무, 교육 등 다방면의 사역에 종사하였다.¹ 그가 한국을 위해 힘써 섬기고 노력한 점들은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할 만큼 귀중한 손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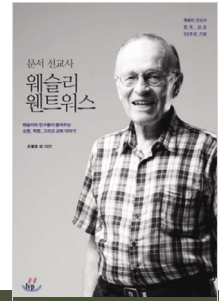
원이삼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지 5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책인 <문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IVP)에는 원이삼 선교사가 그간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본서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에서 1부에는 원이삼 선교사가 직접 집필한 '나의 인생, 나의 소명'이라는 장이 있다. 여기에는 출생부터 시작하여 자라온 배경, 대학 생활, 회심, 한국 선교의 소명, 사역 진행 과정, 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는 원이삼 선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다. 2부에서는 원이삼 선교사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문서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3부에는 여러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원이삼 선교사와의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관한 에세이들이 있다. 따라서 본서에는 원이삼 선교사의 회고록과 더불어 그와 함께 지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겨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기념서라고 볼 수 있다.

원이삼 선교사의 한국 선교 사역을 압축해본다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건 바로 '문서와 교육 사역에 헌신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다고 술회한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책을 읽었고, 나중에 엔지니어로 일하면서도 밤마다 근처 도서관에 가서 신학 논문이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이처럼 원이삼 선교사는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았다. 결국, 그는 선교사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했을 당시, 한국 IVP(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와 함께,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북 테이블을 설치하며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역을 했다.(32-33면). 이뿐 아니라, 원이삼 선교사는 학교 교육과 교회

1. 이유지, "원이삼·크리스티나·설레... 종교계 '특별공로자' 한국인 됐다," 『한국일보』, 2022년 2월 2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410130002875?did=GO>.

〈문서 선교사 웨슬리 웬트워스〉 / 손봉호 외 15인 / IVP / 2015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학교와 교회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독교 신앙은 전인적이며 통합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함양한 그리스도인 학자와 학생들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서 사역에 전념한 원이삼 선교사의 일대기를 담은 저서답게, 책의 곳곳에는 여러 '추천 도서 목록'이 제시된다. 원이삼 선교사가 추천하는 책들의 목록뿐만 아니라,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한 필자들의 추천 도서들도 상당히 많이 제시되었다. 특별히, 원이삼 선교사가 추천한 책들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한 획을 그었던 중요한 서적들이다.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읽는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잘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최태연(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 김병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배종석(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희주(명지대학교 과학사 교수), 장수영(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의 학자들이 각기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 관하여 추천한 도서들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원이삼 선교사를 제외한 총 16명의 공동 집필진들이 그리스도인 후배들을 위하여 전하는 파스한 조언들도 있다. 나와 같은 기독교 대학(원)생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

하는 바이다.

할리우드 영화 〈킹스맨〉(The King's Man)에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Manners maketh man)라는 명대사가 등장한다. 나는 이번에 출간된 본서를 읽고, 원이삼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선교사 원이삼. 그는 책을 좋아하고 늘 책을 곁에 두었던 복음 전도자, 한국에서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담긴 책자와 저널을 건네었던 친구,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출판 사역에 힘썼던 문서 선교사였다. 고로, 그가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은 이것이 아닐까. “문서가 사람을 만든다”(Publications maketh Christian) **FAITH & LIFE**



글쓴이 이준봉

서울신대 신학대학원(M.Div)에 재학 중이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였다.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강림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꿈꾸는 학생이다. 향후 무엇을 깊게 연구할지 아직은 골몰하는 중이다.

정치적 착각에서 벗어나라!

권미영 (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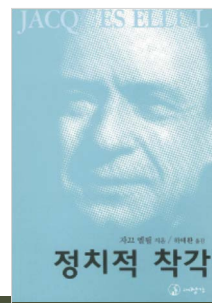
자끄 엘룰(Jacques Ellul)은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적 착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착각이란 정치와 정치가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착각이며, 나아가 모든 것을 정치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화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정치적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삶의 모든 문제는 정치적인 것에 종속되어 있다. 예술도 가치도 정치화되고 있다. 실제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가치들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것이 탁월한 가치가 되었고, 그것과 비교해서 다른 가치들이 정돈된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것은 정치에 따라 평가되고, 그것은 최종적인 가치가 되었다. 정치 권력들은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은 정치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가치들에 무관심하고, 가치들을 '사실'의 차원으로 데리고 왔다. '사실'에 직면해 있는 정치인의 선택에서 가치보다는 효율성이 정치 행위의 기준이 된다. 모든 정부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고, 아직도 존재하는 힘의 정치는 단순히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가혹한 경쟁 체제와 기술화한 세계 속에서는 효율성이 정부의 유일한 합법성의 기준이 된다. 정치적 결정의 다른 극은 일시성이다. 우리의 문명 전체는 일시적이다. 오늘날 정치가 매달린 일시성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뉴스이다. 현재의 정보 상황은 끝없는 자극

을 만들어내고, 계속된 반응을 유발하며, 편견을 되살리고, 집단을 경화시킨다. 더 나아가, 뉴스에 몰입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수준에 대한 무지가 생겨나므로 다양한 정치 수준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뉴스에 사로잡힌 인간은 더 이상 자유가 없고, 예견 능력이 없으며, 더 이상 진실을 보지 못한다. 과거에 대한 포착과 지속성이 없으면 정치도 없다. 뉴스는 지속성의 의미를 추방하고, 기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효율성은 정치의 일반적 법칙이지, 도덕적 법칙이 아니며, 모두에 의해 인정된 법칙이다. 오늘날 정치는 우리의 민주적 도덕성, 자유주의적 또는 평등주의적 휴머니즘, 사회주의적 가치에 상관없이 자율적이다. 모든 전쟁은 부당하고 모든 폭력은 단죄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개인이나 도덕론자의 일이고, 국가는 전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가치가 어떤 윤리적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과 정치 사이에는 거리가 있음이 명백하다.

정치 세계는 실제적인 세계도 아니고, 거짓의 세계도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세계로서, 현실에 비해서는 허구적이다. 오늘날의 선전은 모든 정치적 문제의 창조자이다. 현대인이 세상 위에 덧씌워서 세상을 보는 이미지가 고정관념이다. 현대인은 이 고정관념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환경을 이해한다. 따라서 정치 행위는 필연적으로 여

〈정치적 착각〉 / 자크 엘룰 / 하태환 역 / 도서출판 대장간 / 2011



론이 쓰고 있는 안경, 즉 사물과 환경을 굴절시키는 안경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착각은 정치적 길을 통해 시민이 국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은 강력하게 조직되고 선전에 의해 조종된 대중 속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정치 문제를 사실과 관련된 '지식'의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착각한 결과, 정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닌 '판단'의 문제가 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면상 시민의 참여가 확대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능한 시민이 만들어진다.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정치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속임수이다.

엘룰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며 그릇된 문제와 방법과 해결에 매달리게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는 '탈정치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탈정치화'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그릇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탈정치화'는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립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압력이나 통제나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 단체, 집단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긴장을 발전시키고 다각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착각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긴장은 안정된 상황이 아니어야 하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차원에서

다른 형태로 재생산되어야 한다. 사회가 존속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중심지가 있어야 하며, 문화적이거나 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긴장의 축이 존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경향과 반대되고, 우리의 나태와 맹목과 안락과 평안에 반대되며, 기술과 조직의 자동성에 반대되고, 사회적 조직화와 경제적 복잡성에 반대된다. 그렇기에, 언제나 다시 생각해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며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자신의 안전과 삶의 안정과 복지 증대에만 신경을 쓰면서 '효율성'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필요한 힘을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엘룰은 핑크빛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에게 각자의 운명을 책임지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물질적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처럼, 정치적 착각에 근거한 조악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권미영

성균관대 교육학과에서 교육철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다. 경북대 교육대학원(교육철학)에서 논문 〈성학십도에 나타난 퇴계 공부론의 교육적 함의〉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십여 년 동안 교육사업의 경험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철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에원교회 성도이다.

그리스도인 정치, 과연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가?

홍성욱 (한국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

〈하나님의 정치〉는 시간을 되돌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 대통령에 당선된 2008년, 한국에 소개되었다. 책을 둘러싼 겉표지 띠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커다랗게 쓰여 있다.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정치학 교과서” 이 책의 저자는 흔히 복음주의적 좌파 신학자, 정치운동가로 분류되는 짐 월리스(Jim Wallis)로, 이 책은 미국에서 2005년에 출간되었다. 섹스 스캔들로 무너졌던 빌 클린턴을 대신해, 하나님의 정의를 미국에서 실현시키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 시대, 결과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21세기 현재 전 세계에 전쟁과 테러의 혼란을 불러오고, 복지 정책을 뒷전으로 하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 시대. 이 같은 일련의 역사 속 풍경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 책은 정확히 그러한 시대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월리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한다. 첫째, 하나님은 공화당의 하나님도, 민주당의 하나님도 아니다. 특정 정당만이 하나님 편에서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정치에서 배제하려 하는 세속주의도 버려야 한다. 둘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의 절반 이상은 소외된 자를 향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란, 반드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일관된 생명 윤리’를 지향해야만 한다. 즉,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전쟁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또한, 중범죄자에 대

한 사형 역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 대신, 소외된 자를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충분한 복지 예산을 통해 도와야만 한다. 더 나아가, 선진국은 반드시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복지를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셋째, 우파 기독교계에서 흔히 정치·윤리적 쟁점으로 제시하는 동성애나 낙태 문제는 성경에서는 오히려 소외된 자에 비해 크게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우파 기독교계가 인종·빈부 문제의 구조적 해결에는 침묵하면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만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리스도인 시민들이 직접 기도와 사회 운동을 통해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야 한다.

이 책은 상당히 두꺼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월리스의 명쾌한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그와 동료들의 눈물겨운 간증이 섞여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또한, 2022년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정 정당과 그 정책에 호의적이어야 한다는 식의 압력을 기성세대로부터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필자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방감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방감을 지나면, 특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이 책의 주장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첫 번째로, 최소한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정치〉 / 짐 윌리스 / 정림출판 / 2008



고 포장하는 대다수의 미국 정치인들과는 달리, 아마도 이명박 시대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스스로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는 거물 정치인들은 사라졌다. 심지어는 5년 전에도, 지금도, 사이비 종교나 무속 등이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신앙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세계 초강대국이어서 굳이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세를 주무를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 아직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그간 소위 우파와 좌파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해 왔으며, 그 결과는 대한민국과 기독교에 상당히 파괴적일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일관된 생명 윤리' 하나만을 정치의 유일한 잣대로 세울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윌리스가 '일관된 생명 윤리'를 위해 부차적인 문제라고 치부한 것, 또는 윌리스가 제시한 대안 중에는 필자가 보기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우선, 중범죄자도 인간이기에, 그리고 인간의 사법 시스템은 항상 잘못될 수 있기에 사형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중범죄자에 대한 무기징역 수감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거나, 반대로 엄청난 운영비(세금)를 필요로 한다.

네 번째로, 빈부 문제와 여성 폭력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된 낙태와는 달리, 동성애는 미국에서도 빈부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지역과 세대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이며, 따라서 복지 강화가 반드시 동성애를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윌리스는 결혼이 시민의 기본 권리(공민권)이므로, 동성애자에게도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라면,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최종 목표로 삼는 결혼 시스템에 관한 교육,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에 관한 완전한 공민권 허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윌리스가 동성애 결혼 반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성간 결혼 및 공동체성의 장려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FAITH & LIFE



글쓴이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이론천문센터 선임연구원이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우주론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2018~2020), 고등과학원 QUC 연구원(2013~2016), 충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2011~2013)을 지냈다. 현재 대덕한빛교회 안수집사이며, 카이스트 기독교 세계관 동아리 RACS 간사로도 섬기고 있다.

정치화되지 않은 정치적 신앙을 상상하기

김재완 (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널리 수용 가능한 체계적 복음주의 정치사상의 부재 탓에 정치 활동의 모순과 혼란 및 비효율성을 비롯하여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행태까지 일어나고 있다.”(18면)

복음주의 신학자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는 2008년에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담은 책을 썼다. 복음주의자라면 누구나 정치적 사안들에 적용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복음주의 정치사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가 이해하는 정치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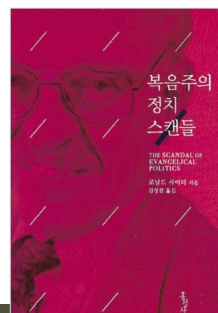
“정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18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를 향한 헌신이 곧 특정 법안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사이더는 그 대답으로 정치적 결정의 네 요소를 제시했다. 규범 체제(성경적 세계관), 사회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 정치철학,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정치적 결정의 네 요소 중 규범 체제와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의 주요 요소들(정의, 인권, 국가, 결혼, 전쟁,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복음주의적 정치사상을 각각 제시한다. 인상 깊은 것은, 그가 모든 장마다 성경적 원리를 중심에 두고 현대 미국의 이슈를 다루고, 그 함의와 접점, 적용점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성경적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왔던 정치적 체제와 가치는 모두 저마다의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치적 체제의 약점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21세기의 한국을 사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먼저, 성경적 원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려는 그의 관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는 성경과 정치를 겹쳐놓고 보지 않는다.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많다. 정치는 부차적이다. 성경적 삶과 정치적 삶을 동일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사이더에 따르면, 모든 현존하는 정치체제들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 한국 사회는 미국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복음주의자는 그러한 체제를 절대시하거나 수호할 무언가로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 / 로날드 사이더 / 김성겸 역 / 홍성사 / 2010



보기보다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드러나는 결점들을 성경적 정치적 삶으로 보완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사이드의 견해는 21세기의 한국 사회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사이드는 2000년대 초반 미국 복음주의의 문제를 ‘통일된 정치사상의 부재’라고 보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음주의의 문제는 ‘파편화된 정치사상과 과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정치사상의 과잉을 목도하는 중이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확고한 정치적 판단의 신학적 기반이 다수로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기반들이 파편화되고 상호배타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20대 대선을 통과하며 기록적인 투표율과 양당 간의 팽팽한 배타적 대립을 동시에 목격했다. 이 두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 환원주의, 말하자면 ‘일상의 정치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화된 일상 속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 한편이 살면, 다른 한편은 죽는다. 한편이 웃으면 다른 한편은 운다. 정치화 된 일상에 함몰된 채 한편에서는 장밋빛 미래, 다른 한편에서는 참혹한 미래를 오늘의 기본으로 당겨온다.

‘신앙의 정치화’ 역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사이더는 모든 복음주의자에게 묻는다. “정치가 실패하면 큰일이 나는가?” 그는 그렇지 않다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답한다. 정치보다 더 크고 중대한 삶의 소명이 존재한다는 선언과 깨달음이

오늘날 한국 사회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하다. 복음주의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 구원이 될 수 있을까?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정치화되지 않은 정치적 신앙’을 얼마나 상상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C. S. 루이스도 〈피고석의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마리탱(Jacques Maritain)은 기독교가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암시했습니다. 비국교도들이 현대 영국사에 영향을 끼친 이유는 비국교도 정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국교도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모든 정당이 그것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재완



서울대 인류학과 조교이다. 총신대 신학과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예수향남교회 교육전도사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세상에 맞서는 LA총현선교교회 세계관 학교



김기봉 (LA총현선교교회 세계관 학교 담당목사)



‘LA총현선교교회 세계관 학교’는 2013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주 1회, 7~10주 동안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LA총현선교교회의 민종기 담임목사는 ‘불고기맛’ -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 비전을 제시하며 그중에서 세계관 학교는 맞서는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이며 양육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LA총현선교교회 세계관 학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교육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제자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2차적 제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2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LA총현선교교회 세계관 학교’에 미국, 한국, 과테말라,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세계관 학교 운영은 식사, 강의,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강사의 강의(90분)를 들으며 새로운 정보와 지성을 자극하며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나눔(45분)을 하며 충분히 강의를 소화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 강사에게 강의 내용과 실제적인 사례와 경험 등을 요청하는 일, 나눔을 위한 교회 자체적인 소그룹 리더를 양육하는 일은 세계관 학교를 운영하는 장년교육위원회의 숨겨진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훈련된 성도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소그룹 리더는 다양한 질문을 다룰 수 있게 미리 훈련을 받아 원활한 소그룹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한다. 소그룹 리더 훈련은 기독교 세계관, 예수님의 리더십, 소그룹의 다이나믹, 성격유형 점검, 질문 다루기, 경청 등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소그룹 리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LA총현선교교회 세계관 학교 소감문

신앙 생활의 초석을 선물받다

청년의 때에 LA로 이민하여 정착을 하면서 총현선교교회를 다니고 가정을 이루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28년의 세월이 지났다.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성경공부 교육과 양육을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워지며 다듬어져 가고 있는 때에 세계관 학교를 접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프리스쿨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지나친 성교육을 시키고, 평등법을 외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경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팬데믹의 상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큰 위기감을 직감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LA총현선교교회에서는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Zoom이라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관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받고 부모로서, 이민자로서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매 주마다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많았다. 특별히 미국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몰랐었는데,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반기독교적인 교육(진화론, 성교육, 평등법, 정책들 등)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았고 신앙생활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과 구체적인 말씀과 기도 훈련이 가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타락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인내하시며 아파하실까를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어제의 남자가 수술을 통해 겉모습을 바꾸어서 여자가 되는 현실을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아,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라고 만드는 인간들의 법.... 우리의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겉만 신앙인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겉과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아지고 신실한 믿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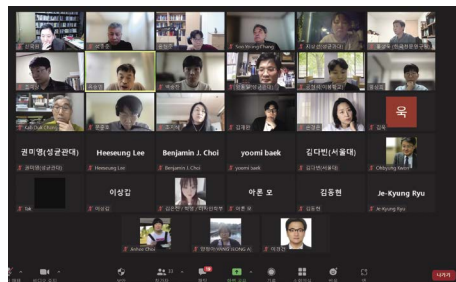
이 외에도 다양한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의 세계관으로 죄악된 세상이 변하고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소원한다.

글쓴이 김만수

LA 귀생당에서 총관리자로 섬기는 직장인이다. 미국에 이민하여 30여년을 지내고 있다. 청년 때부터 총현선교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지금은 교구장, 장년교육위원장, 시무장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제2회 기독교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지난해 7월 30일에 이어 '제2회 기독교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가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40여 명의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기독교 대학원생과 일부 교수님들이 함께하여 '그리스도인과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온라인(zoom)에서 있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독서 나눔 콘서트'의 주제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제를 스스로 함

께 공부하고 정리하며 토론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제2회 기독교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의 준비 과정은 2021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준비는 우선 모든 캠퍼스에서 공통 스터디 도서로 <광장에 선 기독교>(미로슬라브 볼프, IVP)를 함께 정해서 사전 스터디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어서 각 캠퍼스에서 파송된 준비위원들의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서,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정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세 유형을 대표하는 도서들을 캠퍼스 별로 스터디와 발제의 자료로 선정하게 되었다. 즉, 성균관대는 기독교 신앙과 정치 참여는 별개임을 강조하는 <정치적 착각>(자크 엘렐, 대장간), 카이스트는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정치>(짐 윌리스, 청림출판), 서울대는 로잔 연약의 사회적 책임 정신을 계승하는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로널드 사이더, 홍성사)을 정해서 캠퍼스 별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마침내 모임 당일에는 모두 함께 모여 총 9명의 발제자를 통해 모든 도서를 함께 나누었으며, 이어서 열띤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독서 나눔을 위해 발제를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은 대학원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공통 스터디 도서인 <광장에 선 기독교>(볼프, 총 7장)는 서론과 1-2장을 유승민(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과정)이 맡았고, 3-4장을 백유미(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 인지 공학 석사)가 맡았으며, 5-7장을 김다빈(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박사과정)이 맡았다. 캠퍼스별 선택도서는 <정치적 착각>(자크 엘렐)을 권미영(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과정)이 맡았고, <하나님의 정치>(짐 윌리스)를 홍성욱(카이스트 이론물리학 박사,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았으며,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로널드 사이더)을 백승찬(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과 김재완(인류학과 석사, 서울대 조교)이 맡았다.

이번 '독서 나눔 콘서트'를 통해, 1980년대 초 캠퍼스 청년들이 영성과 지성의 균형 잡힌 제자도를 지향하는 독서 스터디 모임의 불씨가 오늘날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건강한 기독교적 인적 자원의 불길로 솟아났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성이다. 그 멋진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새백이슬 같은 청년들로부터 멋지게 지펴져 타올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 1+2월호 | 특집: '그리스도인과 선거'에 대하여

• 지속된 전염병으로 신앙생활의 방향과 동력을 잃은 모습을 곳곳에서 목격한다. 이번 호는 선거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행동을 여러 관점에서 씨름하는 현장을 만나게 하였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공적 신앙, 성경적 삶에 다시 힘을 모으도록 도전받는다. - 박미경 (잠실교회 교육부 목사)

• “최선을 다하되 항상 여유를 두어야 한다”라는 손봉호 박사의 인터뷰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눅 17:10)이라는 말씀을 반추하게 한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근거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내어드림은 철저한 자기 의의 부정으로 소명을 다한다는 고백이다.

- 신성만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대선을 생각하며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뿐임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도했다. 살롬의 정치와 정의를 이끄시는 사랑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 주 왕을 위하여(Pro Rege)!

- 유상한 (화순 소금의원 원장)

• 특집 '그리스도인과 선거'에 실린 8편의 글 입장을 살펴보았다. 5편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거나 좌우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였다. 3편은 보수적, 근본주의적, 반(反)좌파적 시각을 비판하였다. 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 견해의 글은 없었다.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잡지가 되기를 바란다. - 이경건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 송태근 목사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성도의 자세'는 누구를 뽑을지 모르는 고민 앞에서 포기나 아닌 반드시 참여해야 할 투표의 당위성을 갖게 하였다. 또한 대통령 선거는 인간의 손으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대목도 귀하게 다가왔다. - 이선경 (영지대 통합치료대학원 교수)

• 그리스도인들은 '무익한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 있게 선거권을 행사하되 정의 실현을 모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손봉호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겸손하게 선거권을 행사해야 함을 생각하게 된다. - 이진희 (대구 소망교회 담임목사 사모)

• 선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여러 글을 보면서 다시 확인한 부분도 있고 놓치고 있던 관점들을 새로 생각하게 되어 감사했다. 특히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본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몇 분의 설명은 흥미로웠고, 구체적인 정치참여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임상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 윤현준 교수의 '교회, 예수 이야기에 충실한 종말론적 혁명 공동체' 내용 중 그리스도인은 '제자 공동체로의 모험에 참여'한다는 데에 공감한다. 모험은 예측할 수 없기에 위험하지만, 신비한 즐거움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 목적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신나는 모험이다. - 윤숙자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번 호는 '그리스도인과 선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 더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며, 침묵이 아닌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장민호 (상명대 뉴미디어음악학과 교수)

• 만 18세 이상 국민은 투표한다.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권연경 교수의 글 '그리스도인에게 선거란 무엇인가?'에서 "우리 삶은 언제나 정치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어루만지며, 최선의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선거는 이런 나를 점검하는 종고안사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정진우 (밀알두레학교 교사)

• 가장 좋았던 항목은 "살롬을 위한 투표"(신국원 교수)였다. 누가 선출이 되어도 '엔살롬'이 될 것 같은 투표 현장 속에서 "후보에게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최선의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글을 되새김하며 온 가족이 투표했다. - 최민범 (서울 성은교회 담임목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성명서 발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2022년 3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언론 기사 참조: <국민일보>(2022.3.10.), <크리스천투데이>(2022.3.7.)

웨슬리 Wentworth 선교사 대한민국 국민 되다



2022년 2월 24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고문이신 웨슬리 Wentworth 선교사(Wesley J. Wentworth · 87세)가 지난 57년 동안 한국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별공로자의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받았다.

사무국 직원 동정

김유니스 사무국장이 퇴임(2022.2.28)하고 방윤미 학회 및 편집디자인 담당 간사가 신규 부임(2022.3.2)하였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EMCU 총장),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까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부장),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트스디지탈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용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엄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지도자와 부모/교사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2022년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온 · 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시작하고자 한다.

- 어린이를 위한 온 · 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학교 '하이세 아카데미'가 3월부터 개교하여 16가정, 26명의 아이들이 매주 교육받고 있다.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22명)과 어린이 세계관 교육을 준비하는 '2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9명)이 3월부터 진행 중이다.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교전 교육 프로그램인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가 3월부터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로마 신화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 중이다.(수시 회원 가입 가능).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 수업이 3월에 개강하여 진행 중이다.

-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5기 부모세계관학교'가 3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삼일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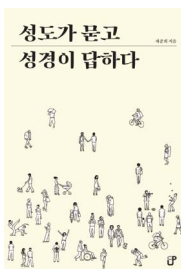
-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에서 '성광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가 4월부터 진행된다.

* 문의/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 바랍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와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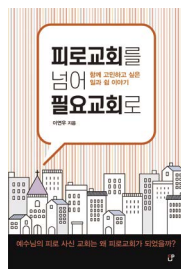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차준희 지음 | 312쪽 | 16,000원 | CUP

**흥미로운 질문,
핵심을 찌르는 명쾌하고 선명한 답변**

저자는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한세대)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사회 이슈, 삶에 대해 궁금해하는 37개의 질문에 대해 신학자로서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려된 답변을 제공한다. CBS 올포원에서 방영된 내용이니 만큼 정려된 질문과 압축되고 핵심을 꿰뚫는 선명한 답변이 제공된다.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

이연우 지음 | 308쪽 | 16,000원 | CUP

함께 고민하고 싶은 일과 쉼 이야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왜 피로교회가 되었을까? 이 책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를 일과 쉼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탐구한 책이다. 저자는 캐나다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공부한 3년 내내 이 주제를 연구하였다. 특히 기독교 청년, 대학생들의 현실과 삶이 많은 부분 투영되어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2년 1월, 2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1월	2022년 2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1월	2022년 2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420,000	2,4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100,000	6,350,000
	임원회비	1,060,000	680,000		기타급여	1,300,000	400,000
	일반회비	4,151,000	4,181,000		소계	6,400,000	6,750,000
	기관후원금	6,350,000	5,3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14,025	431,999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238,910	248,150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14,160	8,360
	VIEW후원금	1,070,000	1,245,000		소모품비	14,520	28,70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363,000	490,000		식비	264,000	620,8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지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632,240	657,880
	기타	0	0		퇴직연금	422,725	394,510
					회계용역비	38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132,000	144,000
	소계	13,474,000	12,632,000		기타(지급수수료)	147,527	144,854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245,045	1,075,54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304,770	1,135,26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504,238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20,84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200,000	0
	예수금	327,630	362,280		소계	200,000	3,125,078
				0	세금	66,650	45,270
					잡비	300	300
	소계	327,630	362,280		소계	66,950	45,57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소계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70,000	16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40,00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294,140	0
	학술지게재료	560,000	0		학술지발송비	944,96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0	0
					소계	1,239,100	0
	소계	730,000	200,000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1,026,965	959,35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959,355	0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2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20,000	0
	소계	1,026,965	979,355		소계	979,355	0
당월 수입액		15,558,595	14,173,635	당월 지출액		13,705,282	14,640,166
전월 이월액		39,858,800	41,712,113	차월 이월액 (잔액)		41,712,113	41,245,582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2년 1월)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식,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김성권,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영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권경조,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봉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병철, 김봉배, 김상범, 김성욱, 김셋별, 김성규, 김성원,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준, 김영준,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균, 김재원, 김재정, 김정모,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자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용,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홍섭, 김화선,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일,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민희,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진,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양창욱,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윤, 이다니엘, 이덕영,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호,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준, 이정철, 이종훈, 이주은,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식, 임수복, 임일택, 임준택, 임준희, 장근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윤조, 정다은, 정대웅,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이레, 정재섭,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다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효실, 홍종민, 홍판석, 황기철, 황도웅, 황성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희원,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식, **2만** 강연희, 강윤환,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경호, 김태진, 박기모, 박희식, 송찬호,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이찬수, 이희진, 장인석,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규,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준용, **4만** 문석운, 박시은,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박계호, 양승훈, 윤석찬, 윤원철,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운식, **6만** 석종준, 송충철,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영, 최현일, **12만** 김민철, 최칠일, **60만** 이재희,

계 7,244,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고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50만** 백석정신아카데미, **300만** (주)유엔티기회,

계 6,400,000원

전체 13,644,000원

회원후원

(2022년 2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조성진, 주성탁,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승택, 김정명, 김정식, 김태영,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1만** 강영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권경조,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봉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배, 김상범, 김성욱, 김셋별, 김성원, 김세령,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준,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균, 김재원, 김재정, 김정모,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자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용,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홍섭, 김화선,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일,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민희,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상형,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진,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영준, 유은희, 유재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윤,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호,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준, 이정철, 이종훈, 이주은,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식, 임일택, 임준택, 임준희, 장근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윤조, 전향록,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이레, 정재섭,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효실, 홍종민, 홍판석, 황기철, 황도웅, 황성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희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식, **2만** 강연희,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경호, 김태진, 김혜정, 박기모, 박미경, 박지현, 박희식, 백은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연우, 이주은, 이창우, 장인석, 정훈, 채기현, 최현중, 한동빈,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나영진,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정민식,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홍정석, 황영철, 황정진, 황준용,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박계호, 양승훈, 윤석찬, 윤원철,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운식, **6만** 석종준, 송충철, **7만**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신국원, 신동천, 이원식, 장수영, 장점영, 최현일, **12만** 김민철, 김준, 이용규, 최민범, 최홍영, 홍성환, 홍승현, **120만** 양성만, 유재봉,

계 9,462,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고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6만** 백석대학교도서관, 숭실대학교도서관, 아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30,000원

전체 14,546,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명예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가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출입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유인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성명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그 고귀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 존엄성을 가짐을 믿는다. 그러나 작금의 러시아 군대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접속탄, 진공탄, 백린탄 등의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된 살상 무기를 거침없이 사용해 우크라이나 시민을 살상함으로써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병원 입원 환자 등 불특정 다수의 양민을 학살하는 야만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어 깊은 슬픔에 빠진 피해자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수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의 파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이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침략 전쟁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결연히 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에 마음을 같이하고, 전쟁 주도 세력의 반인륜적, 반평화적 인권 유린과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우리는 국제 협약에 따라 금지된 살상 무기를 동원하여 병원, 유치원, 주거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학살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당장 중지하고 군대를 즉각 철수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불의한 러시아 군대에 결연히 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인류 보편적 양심과 도덕에 기초하여 반전시위를 벌이고 있는 다수의 러시아 시민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3. 우리는 시민들의 존엄한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있는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고, 희생된 수많은 우크라이나 시민과 파괴된 시설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행될 때까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시민과 연대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2년 3월 7일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 이사장: 신국원, 실행위원장: 박동열, 기독교학문연구회장: 박문식

박영주, 양성만, 양승훈, 유재봉, 장수영, 정희영,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고세일, 강진구, 권오병, 김기현, 김경민, 김대인, 김미영, 김성원, 김예원, 김재완,
김지원, 김철수, 김혜정, 류현모, 문준호, 박원곤, 박진규, 석종준, 신응철, 안선자,
염동한, 오민용, 유경상, 윤완철, 윤헌준, 이명현, 이상민, 이은실, 이재희, 임춘택,
장슬기, 조은주, 최용준, 추태화, 허계형, 현창기, 황영철, 황혜원 (임원 및 대의원 일동)